

# 高麗白磁의 發生과 編年

金 載 悅

(湖巖美術館)

## I. 序

고려시대 유적 출토의 磁器類는 대부분이 靑磁이며 白磁는 매우 드물다. 그것도 다수가 中國製 輸入品일 가능성이 커 명확한 高麗白磁의 遺存例는 극히 희귀한 편이며 현재 알려진 것으로는 100점을 넘지 못하는 것 같다. 다만 柳川里나 沙堂里窯址에서 출토한 白磁片들이 다수 있어 유력한 근거가 되고 있고, 근래들어 龍仁高麗白磁窯址가 발견 조사됨으로서 고려백자의 존재가 약간 부각되긴 했으나 아직도 고려도자의 연구중에서 白磁의 취급은 극히 개략적인 언급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高麗白磁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1916년 ‘뉴욕’에서 열린 「中國古陶彫刻展」의 목록에 “高麗古墳出土 白磁가 전부 中國輸入品이다”고 쓴 데서 출발한다.<sup>1)</sup> 이어 高麗白磁의 존재를 조금씩 인정하다가,<sup>2)</sup> 田中明이 처음으로 “白高麗”란 용어를 사용하며,<sup>3)</sup> 1944년에는 野守健의 『高麗陶磁研究』란 역자 속에 고려백자에 대한 논고가 있었다.<sup>4)</sup> 이어 1950~53년에 英國의 Gompertz가 고려백자에 대한 우수한 연구논문을 발표했고<sup>5)</sup> 小山富士夫는 이를 토대로 고려백자의 3時期 編年을 시도했다.<sup>6)</sup> 이후 '60년대 후반에 京畿道 龍仁郡 二東面 西里에서 해무리굽碗을 출토시키는 고려백자窯址가 발견되면서 初期高麗白磁의 존재가 알려졌고, 이어 淳化4年銘壺가 초기청자가 아닌 백자라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으며<sup>7)</sup> 崔淳雨는 이런 사실과 中國白磁에 대한 新情報 및 遺存例를 첨가시켜, 청자편년에 맞춰 5시기로 나누어 설명하였다.<sup>8)</sup> 근래에 들어서는 三上次男이 「高麗陶磁

1) Bosch Reitz, 「Catalogue of an Exhibition of Early Chinese Pottery and Sculpture」, 1916, New York.

2) Hobson R. L., 「Corean Pottery II, The Koryo Period」, The Burlington Magazine vol. LVI, 1930, p.188.

3) 田中明(筆名, 本野白陶), 「白高麗」, 茶わん40號, 1931, pp.17~22. 고려백자와 定窯白磁와의 유사성을 지적하고 있다.

4) 野守健, 『高麗陶磁の研究』, 清截舎, 1944, (圖書刊行會, 1972年版, pp.41~56) 고려백자의 시작을 神宗代(1197年)로 보았다.

5) Gompertz, G. M., 「Koryo White Porcelain」, Transaction of the Oriental Ceramic Society, 1953, Vol. 27.

6) 小山富士夫, 「高麗白磁・黑高麗・其の他」, 『世界陶磁全集 13, 朝鮮上代・高麗』, 河出書房, 1955, pp. 251~256.

7) 崔淳雨, 「高麗時代の 陶磁」, 『韓國美術全集 9, 高麗陶磁』, 同和出版公社, 1977. p.5. 여기서는 龍仁窯址發見이 '74년이라 되어 있으나 '60년대에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鄭良謨, 「우리나라 도자기」, 『湖林美術館所藏品選集(Ⅰ)』, 湖林美術館, 1984, p.205).

8) 崔淳雨, 「高麗陶磁の編年」, 『世界陶磁全集 18, 高麗』, 小學館, 1978, pp.131~178.

の起源とその歴史的背景」이란 소논문에서 龍仁窯址 해무리굽碗을 근거로 고려백자의 기원에 대해 언급하였으며,<sup>9)</sup> 그외에 짧은 글과 碩士論文<sup>10)</sup>이 있다. 가장 최근에는 姜敬淑에 의해 고려백자 전반에 걸쳐 발생 및 개략적인 흐름을 다룬 논문이 발표된 바 있다<sup>11)</sup>

지금까지 高麗白磁의 연구는 대부분이 靑磁의 설명 속에서 단편적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고려백자 자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미미한 실정인데, 필자는 註10)의 논문에서 '84년에 행한 龍仁西里 高麗白磁窯址 發掘調査結果를 토대로 고려백자의 발생과 전체적인 편년을 시도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후 이에 대한 보고서를 내면서 새로운 사실이 더 밝혀졌고,<sup>12)</sup> 더우기 필자가 주도한 '87년의 2차 발굴조사에서는 堆積層調査에서 예기치 못했던 사실들이 나타나 앞 논문의 상당한 부분에 대한 내용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發掘에 의한 정확한 層位の 뒷받침이 없는 形式分類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절감케 해주었다.

본고에서는 龍仁窯址 2차발굴조사에서 나타난 새로운 사실들을 기초로 하여 고려백자의 발생문제를 다루고, 나름대로 조사 정리한 결과를 토대로 고려백자 전반에 대한 편년을 시도하고자 한다.

## II. 高麗白磁의 發生

고려백자는 '68년에 발견된 京畿道 龍仁郡 二東面 西里 窯址에서 白磁해무리굽碗이 나타남으로써, 靑磁의 발생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미 존재했음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일찍부터 백자구제 제작될 수 있게 된 데는, 앞 시기의 中國製 輸入白磁가 그 발생의 바탕이 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으며, 따라서 백자의 발생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隋, 唐 이래 우리나라에 들어온 백자의 존재부터 살펴 보아야 한다.

### 1. 隋, 唐 白磁의 輸入

지금까지 국내에서 알려진 最古의 白磁로 公州 武寧王陵出土品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약간의 異論이 있으나 胎土나 釉色으로 보아 南北朝 末期에 나타나는 世界 最早의 白磁例로 다루어야 할 것 같다.<sup>13)</sup>

다음으로 皇龍寺址 木塔址의 心礎石下에서 출토한 白磁小壺는 7세기전반경의 唐白磁이며<sup>14)</sup> 慶

9) 三上次男, 「高麗陶磁の起源とその歴史的背景」, 『朝鮮學報 99, 100合輯』, 1981, pp. 225~254.

10) 徐銀珠, 『高麗白磁의 研究』, 一 柳川里出土白磁片을 中心으로 一, 梨花女子大學校教育大學院 學位論文(未刊), 1976.

金載悅, 『高麗白磁의 研究』, 서울大學校 考古美術史學科 碩士學位論文(未刊), 1987.

11) 姜敬淑, 「高麗白磁의 研究」, 『考古美術 171, 172』, 韓國美術史學會, 1986, pp. 19~58.

12) 湖巖美術館, 『龍仁西里高麗白磁窯』, 發掘調査報告書 I, 1987.

13) 文化財管理局, 『武寧王陵』, 1974, p. 44. 이것이 白磁일 경우 武寧王陵의 下限이 529년이므로, 世界陶磁史에서 白磁의 最早例로 알려진 北齊范粹墓(575年)것보다 앞선 시기의 白磁例가 된다.

14)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皇龍寺』, 遺蹟發掘報告書 I, 1984, pp. 325~326.

北 義城에서 발견된 白磁唾壺는 8세기전반경의 唐代 邢窯白磁로 보인다.<sup>15)</sup>

8~9세기에 들어 中國에서는 陶磁業이 크게 융성함에 따라 세계각지로 수출까지 하게 되는데, 이무렵의 中國白磁가 統一新羅時代 遺蹟에서 많이 출토되고 있다. 雁鴨池 발굴에서는 전형적인 8~9세기의 玉璧形굽에 둥근 口緣을 가진 邢窯産의 白磁碗과 晚唐, 五代風의 白磁類가 다수 출토되었다.<sup>16)</sup> 皇龍寺址에서도 역시 ‘邢瓷類雪’에 해당되는 上品의 전형적인 唐代 邢州窯 白磁가 출토되었으며, 역시 邢窯白磁로 보이는 花形접시와, 五代~北宋初의 ‘官’字銘 백자도 함께 발견되고 있다.<sup>17)</sup> 益山 彌勒寺址에서는 특히 大中12年(858)銘이 있는 土器가 출토한 層과 같은 층에서, 3점의 전형적인 唐代 玉璧形굽 백자와와 1점의 越州窯系 四瓣花形靑磁碗이 소중하게 窰鉢에 담겨져 나왔으며, 기타 唐代 白磁類와 龍仁窯址産品으로 생각되는 백자해무리굽완이 보이고 있다.

18)

이로 보아 統一新羅時代에 많은 中國製白磁들이 수입되어 寺院 등에서 널리 사용되었음이 분명해, 8~9세기에 우리 나라에서도 이미 청자 뿐 아니라 백자에 대한 기호와 지식이 상당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 2. 白磁의 發生

고려백자의 발생에 관한 문제는 지금까지 해무리굽완류를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87년에 있는 龍仁窯址 발굴조사 결과, 전혀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 본고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백자 발생의 문제를 다루기로 한다.<sup>19)</sup>

### (1) 龍仁窯址出土 白磁의 狀況

2次 龍仁窯址 발굴조사에서는 본격적인 퇴적층조사를 실시하여 4개의 층위를 확인하였다. 1차 조사시에는 현존하는 퇴적구릉이 단순히 원래의 자연적인 구릉 위에 형성된 얇은 퇴적으로 생각하였으나, 2차의 퇴적층 조사 결과, 原地形은 거의 평탄한 面이고 현재의 丘陵狀 堆積은 완전히 匣鉢등의 窯廢棄物로 이루어진 순수 퇴적구릉임이 밝혀지면서 이를 세밀히 조사하여 4개의 자연 층위를 찾아낸 것이다. 그리고 다시 最下層에서는 2개의 인공층위를 설정할 수 있게 되어, 크게 5개의 층위가 이 窯址에 형성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 층위의 발견으로 적어도 해무리굽완을 중심으로 한 各 器形間의 先後관계는 분명해 지게 되었으며, 따라서 청자와 백자의 발생기간 문제에 대해서도 종래의 견해에 새로운 문제점을 던지게 되었다.

15) 金元龍, 「義城出土唐邢州窯白磁瓶」, 『亞細亞學報 1輯』, 亞細亞學術研究會, 1965, pp.103~111.

16)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雁鴨池』, 1978, p.215. 보고서에는 이에대한 言及이 없으나 鄭良謨先生이 다시 出土磁片을 정리하여 이들을 찾아 내었다(鄭良謨, 「高麗靑磁의 研究」, 『考古美術 171, 172』, 韓國美術史學會, 1986, p.12, 13, 註① 參照).

17) 文化財管理局文化財研究所, 註 14)와 같은 冊, pp.243~245, ‘中國系靑·白磁項’

18) 金正基·張慶浩·尹德香, 『彌勒寺址發掘調查中間略報告』, 文化財管理局文化財研究所, 1982, p.16, 43, 44. 筆者가 實見한 바로, 唐代白磁와 달리 굽전체를 시유한 白磁해무리굽완이 있었다.

19) 湖巖美術館에서 이 窯址에 대해 2次 발굴조사를 1987, 10.15~11.30일까지 행하였다. 結果報告書는 '89年 發刊予定임.

龍仁窯址에 나타난 各層位別 狀況을 보면 다음과 같다. (圖 2, 3 참조)

① 4층; 퇴적층 가장 아래에 위치하는 龍仁窯址에서 最古時期의 층으로, 좌측 퇴적구릉의 중간지점에서 가장 잘 나타나며 좌측구릉이나 산쪽의 퇴적층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器壁이 얇은 匣鉢들로 주로 채워져 있으며, 匣鉢用 흙이 잘 정선되어 匣鉢이 土器같이 보이며 小形匣鉢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 層은 生土面 위에 곧바로 시작되는데, 生土層의 地面 가까이에는 가마벽으로 사용된 벽돌들이 많이 흩어져 있으며, 이 匣鉢과 벽돌 사이에서는 靑磁片만이 출토되었다. 바닥면의 약 30cm 위에서 부터는 청자와 백자가 함께 나오는데, 출토품의 성격으로 보아 4층의 바닥면에서는 청자만이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채집하였고, 따라서 4층은 다시 4-I 층과 4-II 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

· 4-I 층; 生土面에 가까운 층으로 청자만이 출토한다. 청자는 다시 2종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器壁이 매우 얇고 胎色이 赤褐色에 가까우며, 釉層이 얇으면서 유리질이 거의 안되어 土器같은 모습을 한 종류이다. 또 하나는 器壁이 전자보다는 두터우나 역시 얇은 편이고 釉色은 '올리브그린' 색이나 軟褐色 계통의 색조를 띠며, 釉層은 고르고 유리질화도 잘 된 편이나 광택은 무딘 편이다.

이들 청자류는 기형상, 일반적인 碗形의 것과 器體가 碗보다 큰 鉢形의 것으로 크게 두 종류로 구별된다. 器壁線은 해무리굽 碗類에 비해 약간 孤形을 이루며, 內底에는 圓刻이 없고 굽의 경우는 전형적인 해무리굽안 보다 地面에 닿는 굽바닥의 폭이 많이 좁은 것이 특징이다. 해무리굽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소성받침은 耐火土를 사용했는데, 굽바닥면의 거의 전면에 얇게 바르거나 4~5곳에 얇게 반치고 있다. 그리고 鉢形器는 거의 포개어 燒成한데 비해 碗類는 거의 포개 구운 흔적이 없는데, 이것은 廢品의 경우로 보아 鉢을 아래에서 부터 포개 쌓은 다음, 맨 위에 碗을 두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층에서는 포개 구운 것이 일반적인 燒成方法이라고 생각된다.

· 4-II 층; 靑磁만 나오는 바닥층을 제외한 4층 전체를 뜻한다. 4-I 층에서 출토하는 청자류가 계속되지만 토기같은 청자류는 보이지 않는다. 여기부터 백자류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청자와 백자의 비율은 반반정도이며 백자는 鉢보다 碗이 훨씬 많다. 白磁碗類들은 靑磁碗과 同形으로 孤壁에 굽의 바닥폭이 해무리굽의 경우보다 많이 좁으며, 內底圓刻이 없는 형태이다. 胎土는 매우 정선되었으며 器壁의 두께가 오히려 뒷 시기에 나오는 해무리굽안 보다 얇고 정제되어 있고, 白色의 純度도 꽤 양호한 편이며, 유리질화도 잘 되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上品의 白磁質을 보인다.

이 4층에서는 해무리굽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② 3층; 이 층은 불 맞은 적갈색의 고운 흙들이 많이 섞인 층으로 여타 匣鉢 위주의 퇴적층과는 구별이 되나 상대적으로 층의 두께는 얇다. 3층에서 출토하는 磁片은 대부분이 白磁여서 이 층 시기부터 白磁全燒窯址로 바뀔을 알 수 있으며, 이의 靑磁와 黑釉磁가 매우 少量 나타난다. 器種은 碗이 대부분으로 4-II 층에서 보이는 형식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 많으나, 일부 碗의 굽바닥면의 幅이 보다 넓어진 것이 나타나며, 간혹 해무리굽으로 보아도 좋을 정도의 것도 보인다. 따라

서 해무리굽碗은 일단 이 층에서 부터 시작된다고 생각되나 그 量이 아직은 미미한 편이다.

③ 2층; 다소 두텁고 약간 거친 耐火土를 이용한 匣鉢과 窯廢棄物로 이루어진 층으로 출토되는 磁片들은 대부분 전형적인 白磁해무리굽碗들이다. 한마디로 본격적인 해무리굽碗 驪造時期的 퇴적층이다. 靑磁는 거의 보이지 않으며, 白磁의 釉色이나 製作手法등이 앞의 3층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白磁해무리굽碗類는 器壁이 거의 直斜形을 이루며, 內底圓刻이 생겨 있고, 전혀 포개 굽지 않아 일반적인 靑磁해무리굽碗의 특징을 그대로 보이고 있는데, 器壁의 두께는 3층 출토 것 보다 많이 두터워져 든중한 느낌을 주며, 釉色에 연한 綠色이 있거나 靑色기운을 머금고 있는 것이 대부분으로 전반적으로 白度가 많이 떨어지는 등, 오히려 앞서 3층의 백자보다 質的으로 못해진 느낌을 주고 있다.

④ 1층, 自然堆積의 最上層으로, 굵은 砂粒이 섞인 거친 耐火土를 이용해 두텁고 투박하게 만든 圓筒形 匣鉢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본 요지의 가마중 가장 늦게 사용된 대규모의 진흙가마를 운용하면서 생긴 퇴적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무리굽碗 다음 시기의 堆積層으로, 이 층에서는 대부분이 質이 粗雜한 白磁類가 나타나 급격한 質的 下落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砂粒이 섞인 거친 胎土에 施釉도 外面의 下半部는 하지 않는 半施釉가 많으며 釉面이 조잡하거나 덜 굽힌 상태의 것이 많고, 여러 점을 포개 구운 粗質집시류가 가장 많다. 器種이 多樣해져 특히 立体的 大形器들이 많이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器形上에서는 地方的인 면모가 나타나고 있다. 鐵繪白磁類들이 이 층에서 보이고 있다(龍仁窯址 發掘報告書 II類型 參照).

이상, 퇴적층위에서 나타난 사항들을 정리해 보면, 첫째, 龍仁窯址는 처음에는 靑磁를 燻造하는 窯址로 시작하였다가 곧 白磁를 굽게 되고 뒤이어 白磁全燒窯址로 변화하며, 둘째, 해무리굽碗類 보다 이른 시기의 靑磁와 白磁가 명백하게 존재하며, 셋째, 해무리굽을 중심으로 볼 때, 굽바닥幅이 좁은 것이 먼저 나타나고 전형적인 해무리굽은 이후에 발생하며, 前者의 경우 內底圓刻이 없고 포개 구운 예가 많다는 점등이 새롭고 중요한 사실로 여겨진다.

이렇게 볼 때, 白磁의 발생은 靑磁의 토대에서 이루어졌음을 우선 알 수 있으며, 발생시기는 적어도 해무리굽 사용시기보다는 빠르다는 것등은 확실해진 셈이다.

## (2) 白磁發生時期

龍仁窯址에 나타난 층위별 출토품을 근거로 하여 白磁의 발생시기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까지 우리나라 도자기 발생에 관한 표준유물로 다루어져 온 해무리굽碗의 발생시기를 규명한 다음, 이를 토대로 추정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 ① 해무리굽碗의 검토

#### ㉠ 中國과 日本의 경우

해무리굽碗은 굽이 마치 해무리 같이, 地面에 닿는 面의 幅이 매우 넓은 형태를 이룬 碗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굽을 日暈굽, 달무리굽, 月暈굽등으로 부르며, 중국에서는 璧形굽, 玉璧形굽이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蛇目高台라 부른다.

해무리굽이 중요한 것은, 中國의 唐代 遺積이나 窯址에서 많이 출토되면서 唐代的 典型的인 굽

型式으로 다루어 지고 있어, 陶磁編年에 있어 중요한 標準型式이 되기 때문이다. 이 특수한 형식의 굽이 중국에서는, 대개 8세기~9세기 전반에 크게 성행하고 晚唐時期가 되는 9세기중엽 후기에 차츰 예가 드물어 지다가 五代에는 幅이 좁은 일반적인 굽형식으로 바뀐다고 한다.<sup>20)</sup> 이 굽은 唐代의 青磁, 白磁, 黑磁 등에 모두 성용되었으며, 碗의 細部形式에 있어 青磁와 白磁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口緣처리에 있다. 즉 唐代白磁로 대표되는 河北省 邢州窯 출토품의 경우, 口緣을 밖으로 말아 凸한 突起가 한줄 있는 것이 특징이며<sup>21)</sup> 越州窯系의 青磁해무리굽碗은 口緣에 突起가 없이 直斜形으로 끝나고 있다(圖 4, 참조).

중국의 紀年銘 있는 墳墓에서 출토한 白磁해무리굽碗의 예를 보면 西安雷府君夫人宋氏墓(745년)출토 白磁碗<sup>22)</sup> 湖南益陽縣赫山廟唐墓(763년)출토 白磁碗<sup>23)</sup>이 있고 가장 늦은 것은 廣州市姚潭墓(858년)출토 白磁碗<sup>24)</sup>이 있으며, 이외 王清墓(832년)출토 青磁碗<sup>25)</sup> 등이 있다.

한편, 日本의 경우, 8세기후반~9세기에 걸친 시기에 중국으로부터 해무리굽의 청자, 백자완이 수입되었으며,<sup>26)</sup> 9세기중기 후반에 平安京 幡伎부근의 官窯와 美濃 猿投窯 등의 施釉土器에 越州窯 기술이 移入된 징후를 보여 9세기후반에는 鉛釉와 灰釉에 의한 해무리굽碗을 제작하였다고 한다.<sup>27)</sup> 그러나 幸木遺蹟 發掘調査에서는 941년층을 분석하여 越州窯碗의 蛇目高台가 941년 전후에서 蛇目形에서 輪高台形으로 전환된다고 보아, 越州窯에서 해무리굽 사용시기의 下限을 10세기중엽까지 내려다 보고 있다.<sup>28)</sup> 그러나 中國側 자료에서 五代에 해당되는 遺蹟이나 窯址에서는 해무리 존재를 확인할 수 없어<sup>29)</sup> 幸木遺蹟의 10세기중엽 下限說은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며, 中國에서 해무리굽碗의 제작시기는 늦어도 10세기까지는 내려오지 않을 것으로 믿어진다.

### ㉠ 우리나라의 경우

- 
- 20) 李知宴, 「唐代瓷窯概況與唐瓷의 分期」, 『文物』, 1972年 3期, pp. 34-44, 「邢窯瓷器發展につくて」, 『三上次男博士喜壽記念論文集, 陶磁編』, 平凡社, 1985, pp. 41-64. 또 窯址出土品을 보면, 甓形굽의 경우에는 모두 唐代로 시기가 설정되어 있다(出光美術館, 『近年發見の窯址出土 中國陶磁展』, 1982).
- 21) 河北臨城邢窯研制小組, 「唐代邢窯遺址調查報告」, 『文物』, 1981年 9期, pp. 37-43.
- 22) 張正嶺, 「西安韓森寒唐墓清理記」, 『考古通訊』, 1957年 5期, pp. 57-61.
- 23) 益陽縣文化館, 「湖南益陽縣赫山廟唐墓」, 『考古』, 1981年 4期, pp. 315-318. 湖南地域에서 발견된, 絶對年代가 분명한 最早의 백사임.
- 24) 廣州市文物管理委員會, 「三年來廣州市古墓葬의 清理和發見」, 『文物參攷資料』 1956年 5期, p. 27과 圖 23.
- 25) 周世榮, 「長沙唐墓出土瓷器研究」, 『考古學報』 1982年 4期, pp. 509-523. 圖 1.
- 26) 長谷部樂爾, 『日本出土の中國陶磁』, 東京国立博物館, 1975, pp. 60-61.
- 27) 吉岡完祐, 『高麗青磁의 發生에 關한 研究』, 崇田大學校 博物館, 1979, p. 1. 高島忠平, 「平城京東三防大路東側出土の施釉陶器」, 『考古學雜誌』 57-1 號, 1971, pp. 65-80.
- 28) 松岡史・吉岡完祐, 『幸木遺蹟』, 豊津町教育委員會, 註 27)의 吉岡完祐 論文, p. 12에서 再引用.
- 29) 浙江省一帶에서 발견, 조사된 越州窯系青磁窯址中, 五代에 해당되는 窯址나 層에서는 甓形굽의 存在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張翔, 「甞江金華青瓷窯址調查」, 『考古』, 1965年 5期, pp. 236-242, 朱伯謙, 「浙江東陽象塘窯址調查記」, 『考古』 1964年 4期, pp. 188-190. 朱伯謙・王士倫, 「浙江省龍泉青磁窯址調查發掘의 主要收穫」, 『文物』, 1963年 1期, pp. 27-41. 李知宴, 「浙江龍泉青瓷山頭窯發掘의 主要收穫」, 『文物』 1981年 10期, pp. 36-42, 紹興市文物管理委員會, 「紹興上炊土官山越窯調查」, 『文物』, 1981年 10期, pp. 43-47. 等).

통일신라 유적으로 추정되는 慶州拜里,<sup>30)</sup> 扶餘扶蘇山,<sup>31)</sup> 雁鴨池, 皇龍寺址, 彌勒寺址 등에서 唐代 靑磁와 白磁의 해무리굽碗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으나, 어느 것이나 확실한 紀年銘이 있는 것은 없다(圖 5. 참조).

그러나 해무리굽碗을 제작한 窯址와, 이와 器形上으로나 時期的으로나 관련이 있다고 믿어지는 窯址들이 西海岸 一帶에 넓게 分布하고 있다. 즉, 康津 龍雲里一帶,<sup>32)</sup> 高興 雲岱里,<sup>33)</sup> 高敞龍溪里,<sup>34)</sup> 盤岩里,<sup>35)</sup> 瑞山 梧沙里,<sup>36)</sup> 鎭安 道通里,<sup>37)</sup> 高陽 元興里,<sup>38)</sup> 龍仁 西里, 楊州 釜谷里,<sup>39)</sup> 平壤 二里<sup>40)</sup> 등지에서 우리나라 初期靑磁窯址들이 발견되고 있다(圖 6, 7 참조). 이들은 다시 두가지 계통으로 나누어 지는데, 하나는, 康津이나 高敞등에 있는 전형적인 해무리굽碗 生産窯址이며, 또 한 계통은, 瑞山, 高陽, 鎭安, 楊州 등의 底徑은 넓으면서 굽바닥면의 幅이 보다 좁고 內底圓刻이 없으면서 포개구워 質이 앞보다 떨어지고 올리브·그린이나 褐色調를 많이 띤 釉色을 보이는 靑磁類를 구운 요지이다. 이들 兩者의 先後關係와 時期說定에 대해 최근 尹龍二는 “후자의 窯址群이 10세기후반경에 약간 먼저 발생하고 전자는 거의 동시간나 조금 늦게 발생한다”는 說을 제기하고 있다.<sup>41)</sup>

그런데 이 요지들에서 출토되는 것은 대부분이 素文의 碗, 鉢類들이며, 해무리굽碗의 형식을 보면, 中國의 기형과 매우 유사하여 굽다리의 생김새가 단정하고 器壁도 거의 直斜形인데 다만 中國 것과는 달리 內底에 圓刻이 존재하여 기법상의 차이를 보이는 종류와, 앞의 것이 고려적으로 변화하여 전체 기형이 작아지면서 해무리굽도 작아지고 굽의 각음새가 불분명해지는 종류로 구분될 수 있다. 이것은 해무리굽碗類의 사용시기가 自體 內에 형식변화가 있을 정도로 상당한 기간 제작되었던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 ② 해무리굽碗의 發生時期

初期靑磁窯址에서 中國의 唐代 해무리굽碗과 유사한 기형이 대량으로 제작된 사실을 두고 지금까지, 이의 발생시기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었다. 대체로 9~10世紀로 集中되어 나타나지만, 사실 9세기전반설<sup>42)</sup> 9세기중엽설,<sup>43)</sup> 9세기후반설,<sup>44)</sup> 10세기전반설,<sup>45)</sup> 10세기후반설<sup>46)</sup> 등 그 발생시간

30) 三上次男, 「朝鮮半島出土の中國唐代陶磁とその史的意義」, 『朝鮮學報 87』, 1978, 4, pp. 23~25.

31) 三上次男, 註 30)의 論文, p. 27, 28, 37, 38.

32) 崔淳雨, 『韓國靑磁陶窯址』,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2.

33) 尹龍二, 「高麗陶磁窯址의 研究」, 『考古美術 171, 172』, 韓國美術史學會, 1986, p. 66.

34) 圓光大學校馬韓百濟文化研究所, 『高敞 雅山덤 水沒地區 發掘調査報告書』, 1985.

35) 龍溪里窯址 맞은 편인, 北便 산줄기 너머에 위치하며, 尹龍二教授가 발견함.

36)~38) 崔淳雨, 註 32)의 冊.

39) 尹龍二, 註33)의 論文, p. 60. 1982年 發見.

40) 野守健, 註 4)의 冊, p. 212.

41) 尹龍二, 「高麗陶磁의 變遷」, 『問松文華, 陶磁 VI』, 韓國民族美術研究所, 1986.

42) 吉岡完祐, 註 27)의 論文, 崔健, 「韓國靑磁發生에 관한 背景의 考察」, 『古文化』 31輯, 韓國大學博物館協會, 1987, p. 32.

43) 鄭良謨, 註 16)의 論文중의 註① 參照

44) 長谷部樂爾, 「高麗靑磁의 出現」, 『陶器講座 8, 高麗』, 雄山閣, 1971, pp. 197~206.

45) 三上次男 註 9)의 論文, pp. 225~254.

46) 尹龍二, 註 41)의 論文, pp. 74~76.

에 대해 200여년의 異見을 가지고 있어 아직 해무리굽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도자기발생시기에 定說이 없는 실정이다.

해무리굽碗의 발생문제와 관련해 우선 중요한 것은, 그 原型이 되는 中國側의 사정을 자세히 알아야한다는 것인데, 사실 중국에서는 이 해무리굽을 唐代磁器의 典型的인 型式으로 보고 더 이상 地域別이나 型式變化등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대체로 해무리굽의 존재가 唐代의 8~9세기 것으로 비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이미 9세기 후반에는 土器등에 해무리굽완 형식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도 명백하다. 따라서 당시 韓, 中, 日 三國의 관계로 보아 우리나라만 이 해무리굽완의 발생이 유독 늦을 이유가 없는 셈이다. 특히 統一新羅時代의 전반적인 羅唐文化交流의 면에서 보아도 같은 樣式이 중국에 비해 1~2백년 이상 뒤져 나온다는 것은 생각키 어렵다. 더우기 10세기 이후가 되면 중국은 五代越州窯靑磁가 全盛을 이루는데, 이때는 벌써 해무리굽이 아닌 일반적인 輪形굽으로 넘어가며, 文樣이 많이 사용되어 陶磁樣相이 크게 일변하면서 唐代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의 窯業을 이루게 된다.<sup>47)</sup> 따라서 만약 우리나라 도자기의 발생이 五代 越州窯의 영향을 받았다면, 五代之 器風이 나타날 것은 자명한데, 그렇지 않고, 거의 唐代 器形과 방불한 해무리굽碗類가 대량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일단 그 영향時期를 五代와 연결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해무리굽碗의 발생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보면, 먼저 統一新羅 遺蹟인 雁鴨池에서 國內製作의 해무리굽碗이 출토되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10세기 초엽에는 이미 발생했던 것 같다. 다음으로, 중국의 해무리굽碗類의 盛行은 飲茶風習의 유행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sup>48)</sup> 우리나라의 飲茶風習은 統一新羅後期の 禪宗의 流入과 함께 유행을 보게 된다. 즉 禪宗이 들어온 善德王3年(829)에 金大廉에 의해 土產茶가 시작되었고,<sup>49)</sup> 高麗太祖14年(931)에는 軍民에 까지 茶가 유행하였으며,<sup>50)</sup> 成宗9年(909)에는 平壤등의 지방 일반인까지 성용되었음<sup>51)</sup>이 史料에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飲茶에 반드시 필요한 磁碗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에는 中國製品을 수입하겠지만, 곧이어 多量의 茶用磁碗의 수요를 충족키 위해 자체생산이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된다.

이와 같이, 해무리굽碗은 唐代 磁器를 模本으로 하고, 統一新羅 遺蹟에서 이미 자체생산된 것이 나타나고 있어 그 發生時期의 下限은 10세기초엽으로 일단 設定할 수 있을 것 같으며, 中國에서 同形式의 碗이 크게 성행한 8~9世紀와 비교해, 아무리 늦어도 9세기 말엽에는 발생했다고 생

47) 越州窯의 唐代와 五代之 變化相에 대해서는, 馮先銘, 「新中國陶瓷考古的主要收穫」(『文物』1965年 9期)이란 論文參照.

48) 馮先銘, 「從文獻看唐宋以來飲茶風尚及陶瓷茶具的演變」, 『文物』, 1963年 1期, p. 10. 玉璧形磁碗이 唐代에 가장 유행한 양식이면서 飲茶의 茶具로서는 最適이라고 하고 있다.

49) 金富軾, 『三國史記』卷十, 興德王三年十二月條, “入唐廻使大兼持茶種子來王使植地理山, 茶自善德王時有之至施此盛焉……”

50) 『高麗史』, 世家卷第二, 太祖十四年秋八月 發丑條, “…遣甫允善規等遣羅王鞍馬綾綵錦并賜百官綵帛軍民茶僕頭, 僧尼茶香有差…”

51) 『高麗史』, 世家卷第三, 成宗九年冬十月甲子條, “…西京入流八十以上者優賞各有差 三品以上公服一襲, 五品以上彩二匹僕頭二枚茶一十角, 九品以上綵一匹僕頭一枚茶五角, 入流以上母妻年八十者 三品以上布一十四匹茶二斤, 五品以上布一十匹茶一斤, 九品以上布六匹茶二角……”

각된다.

### ③ 白磁의 發生時期

앞에서 해무리굽완의 발생시기를 9세기말엽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를 토대로 하여 白磁의 발생시기를 추정하고자 한다.

前述한 바 같이, 龍仁窯址 堆積層調査에 따르면, 해무리굽碗 보다 아래層에서 다른 형식의 靑磁와 白磁가 출토되었다. 특히 白磁의 출현보다 더 일찍 靑磁만 제작했던 4-I 층이 나타나, 일단 龍仁白磁는 靑磁의 바탕 위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古式靑磁→古式白磁→해무리굽白磁의 順次的인 發展過程이 있는 것이다.

이 龍仁窯址 最下層에서 출토한 古式靑磁類는, 지금까지 高麗初期 靑磁窯址로만 알려진 瑞山 梧沙里, 鎭安 道通里, 高陽 元興里, 楊州 釜谷里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들 窯址들은 器形뿐 아니라 얇은 匣鉢 및 납작한 匣鉢받침대의 사용이나 벽돌가마의 이용 등에서 龍仁窯址 最下層과 일치하고 있어, 일단 해무리굽 보다 이른 시기의 靑磁窯址群으로 확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이들 窯址들의 發生時期가 우리나라 陶磁發生의 시기가 되게 되었는데, 이들 窯址의 발생기간은 결론적으로 말해, 아직 단정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어 다만 해무리굽 보다 이른 시기의 것으로만 말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中國側 窯址調査등의 자료에 의하면, 이런 형식의 굽을 가진 碗類들이 唐代 해무리굽碗들과 함께 출토된다는 정도만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먼저 발생하고 그 뒤에 해무리굽이 생기게 되었는지 현재로선 알 길이 없으며, 중국의 唐代窯業에 대한 폭넓은 자료의 뒷받침 없이는 무어라 단정키 곤란할 것 같다.

그리고 龍仁窯址에서는 古式靑磁 뒤에 古式白磁→해무리굽白磁로 변화하지만, 위의 初期靑磁窯址들에서는 전형적인 해무리굽類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이런 현상만으로 볼 때 古式靑磁類가 상당기간 제작되다가 해무리굽이 출현한 것으로 이해될 수 밖에 없다. 이같은 사실은 龍仁窯址 堆積狀況에서도 감지되는데, 해무리굽 아래층의 퇴적이 1m이상 두텁게 나타나고 있어 결코 短時的인 퇴적은 아닌 것 같아, 해무리굽 출현 이전 시기의 폭이 꽤 긴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놓고 白磁發生時期를 추측해 볼 때, 먼저 白磁發生의 토대가 된 古式靑磁類의 발생시간은, 筆者가 해무리굽碗 발생시기로 추정하는 9세기말엽보다는 훨씬 빠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9세기중엽 내지 9세기전반까지 올라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사실, 9세기 전반이란 狀況은, 張保臯의 활발한 海上活動이 대단했었고 西南海岸 地方民이 越州窯가 있는 中國南部 浙江省으로 이주하기도 한 시기로 中國과의 교류가 私의으로도 매우 활발한 시기였다.<sup>52)</sup> 또 이당시 土器의 狀況을 보면, 최근 靈岩 鳩林里 土器窯址調査에서 唐代의 典型的인 注子形式이 이곳 토기에 明確히 반영되고 있어 中國磁器의 영향을 충분히 느낄 수 있으나, 日常用器인 碗, 鉢類는 거의 존재치 않고 있어<sup>53)</sup> 벌써 碗, 鉢類는 磁器로 대체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강력히 암

52) 吉岡完祐, 註 27)의 論文, pp. 33~35參照.

53)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靈岩郡, 『靈岩鳩林里土器窯址發掘調査』. 1988, 圖14, 25 등의 注口の 경우, 굽고 짧은 대롱같은 形狀이나, 表面을 각아 多角形으로 만든 점등을 唐代注子の 注口形態와 同一하다.

시하고 있다.

때문에, 9세기전반경의 政治, 社會的인 狀況이나 土器의 樣相 등으로 보아, 이 당시에 磁器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아, 筆者는 막연하게나마 해무리굽碗의 존재가 나타나기 훨씬 이전인 9세기전반경에 古式靑磁類가 發生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白磁은 이런 古式靑磁를 바탕으로 약간 뒤늦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 발생시기는 대략 9세기중엽경으로 比定하고자 한다.

### Ⅲ. 高麗白磁의 編年設定

陶磁史의 編年設定에 있어서 기본자료는, 文献記錄과 遺蹟出土品, 紀年銘있는 遺存例, 窯址調査가 主軸이 되는데, 고려백자에 관한 기본편년자료는 매우 드물어, 文献記錄이나 紀年銘있는 遺存例는 거의 없고 窯址의 경우는 白磁全燒窯址로는 유일하게 龍仁西里窯址가 있을 뿐, 康津沙堂里나 扶安柳川里에서는 少量의 白磁가 구워졌을 뿐이다. 한편, 고려백자로 世間에 알려진 것은 總數量이 100點도 되지 못하고 있어, 사실 고려백자의 自体編年은 자료의 부족으로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다.

本稿에서는 高麗白磁의 編年을 잡기위해 기본되는 자료들을 모두 검토해서, 그 결과에 의해 編年을 설정하고자 한다.

#### 1. 紀年銘 遺存例와 遺蹟出土品

##### (1) 淳化4年銘 壺의 문제

이 壺가 선구적인 靑磁가 아니라 오히려 선구적인 白磁라는 說은 처음 鄭良謨에 의해 제기되었고 이를 수증한 崔淳兩는, “釉胎와 함께 선구적 청자라기 보다는 白磁質에 가깝고, 993년경에는 이에 고려백자窯技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던 사실과 더불어, 지금까지의 靑磁說은 再考되지 않으면 안된다. 즉 釉色은 淡綠을 띤 黃白調가 강하고 굽안의 無釉部分에서 보이는 胎土의 質은 粘土로 된 靑磁胎質과는 다르다”고 하였다.<sup>54)</sup>

그러나 최근엔 長沙 銅官窯의 영향을 받은 黃釉陶로 보는 견해와<sup>55)</sup> 元興里등 初期靑磁窯址에서 구운 청자라는 說<sup>56)</sup>이 대두되고 있다.

이 淳化4年銘 壺는 확실히 同時期의 靑磁와는 釉胎나 器形에서 異質의이며, 黃釉陶라 하기엔 국내에서 이런 종류를 구웠다는 증거가 없다. 때문에 白磁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특히 龍仁白磁窯址 출토품들이 多種多樣的 釉胎를 보이므로 初期白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나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

##### (2) 承安3年銘 宋子清墓出土 白磁淨瓶

1916년 京畿道 開豐郡 嶺北面 宮女洞 古墳에서 土器梅瓶, 靑磁碗과 함께 出土된 것으로 承安3

54) 崔淳兩, 註 8)의 冊, 圖版 115, 116의 解說.

55) 三上次男, 註 9)의 論文, pp.247~250.

56) 尹龍二, 註 41)의 論文, p.76.

年(1198)銘이 있는 宋子清墓誌가 伴出되었다. 淨瓶은 전형적인 12세기 것인데, “胎土는 白色에 堅硬하고 약간 粗雜한데 가운데에 미세한 黑點이 混在하고 있다. 釉面이 粗하고 帶靑灰白色임, 釉藥과 함께 胎土는 柳川里窯址보다 세련되지 않지만, 그 선구가 되는 것이라 생각된다”고 기술하고 있다.<sup>57)</sup>

12세기말경, 柳川里白磁와는 다른 계통의, 粗質에 淡靑色을 띤 白磁가 존재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확실한 예이다.

### (3) 洪武24年銘 金剛山出土 白磁一括<sup>58)</sup>

1932年 江原道 淮陽郡 長楊面 長淵里 金剛山 月出峰에서, 石函 속에서 銀製舍利塔등과 함께 白磁碗 및 鉢 4點, 白磁香爐 1點이 발견되었었다. 이 중 2點의 白磁鉢에 李成桂가 建國 바로 前年(1391)에 佛前에 올리는 發願文이 陰刻되어 있는데, “大明洪武二四年辛未四月日立願”으로 시작되며, 內面에 銘이 있는 鉢의 外面下部에는 “辛未四月日防山沙器底沈龍(意?)”이란 銘이 있다.

出土品 중 白磁鉢은, 器形이 鮮初에 유행한 盒身과 유사하여 麗末白磁의 樣相이 朝鮮으로 곧바로 이어졌음을 짐작케 하나 釉胎는 柳川里系 고려백자와는 전혀 다르면서 鮮初 廣州地方의 우수한 白磁質과도 거리가 멀다. 즉 胎土는 淡灰白色에 두텁고 조잡하며, 釉는 帶靑灰白色을 보이고 광택은 약간 둔하며 釉面에는 網狀氷裂 및 黑小斑點이 곳곳에 있어 釉胎가 粗質이다. 이들은 麗末 地方窯에서 구운 白磁類들이다.

## 2. 高麗白磁 窯址

### (1) 龍仁 西里窯址

두차례 發掘調査에 의해 瓦家로 보이는 建物址와 總長 83m에 달하는 초대형 가마가 확인되었으며 堆積層調査에 의해 4時期의 層位가 나타났다. 여기서는 본 요지의 성격 및 자체편년을 하고자 한다.

#### ① 窯址의 性格

建物址 및 堆積部, 가마 등에서 출토한 白磁類들을 정리하여, 堆積層에서 나타난 層位別 내용과 비교하여 전체적인 요지의 성격을 살펴보면, 最下層의 古式靑磁와 共伴되는 白磁類와 白磁全燒窯址로 바뀐 3層의 白磁類, 해무리굽碗 전성시기인 2層까지는 器種을 불문하고 良質의 胎土를 사용해 정제된 제작수법을 보이고 있으나, 最上層에서는 器形의 變化는 물론 胎土에 砂粒이 많이 섞이고 燒成이 不安定한 접시류를 주로 하는 粗質白磁類가 주종을 이루면서 역시 粗質의 大形器들을 많이 燔造하였다. 즉, 白磁의 발생부터 해무리굽완의 제작시기까지는 質의 良好한 精細質 產品을 내고 있으나 그 이후에 갑자기 質이 극히 저하되면서 器形에서도 地方的인 모습으로 일변하며 대부분 여러점을 한번에 포개 구워 粗質品을 多量으로 생산하고 있다.

57) 野守健, 註 4)의 冊, p. 43.

58) 野守健, 註 4)의 冊, pp. 46~49.

鄭良謨, 『世界陶磁全集 18, 高麗』, 小學館, 1978, 圖版 193-196의 解說.

同一한 窯址 내에서의 이같은 급격한 성격변화에 대한 해석을 나름대로 내려보면, 各地方에 分布한 初期靑磁窯址들이 11세기중후반에 들어 康津이나 扶安에서 官窯의 性格의 우수한 窯業이 크게 발달함에 따라 급격히 쇠퇴해지는데는 소멸한다는 高麗陶磁의 일반적 상황에 비쳐볼 때, 역시 龍仁白磁窯址도 처음엔 良質白磁를 燻造하다가 11세기중후반경에 그 主導權이 康津과 扶安으로 집중되자 급격히 地方窯로 되면서 粗質白磁類를 생산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sup>59)</sup> 따라서 本窯址는 대체로 11세기중엽을 고비로 하여 精細質에서 粗質로, 一般的에서 地方的으로 그 性格이 크게 변모한다고 생각된다.

## ② 窯址 出土品の 編年

發掘結果에 따라 출토된 유물의 層位別 狀況에 따라 龍仁窯址自体 內的 編年을 設定해 보면 다음과 같다.

㉠ 堆積層 下部에서 나타난 4, 3層 出土 白磁類들은, 해무리굽碗類 보다 이른 시기의 것으로, 前述한 대로, 발생시기는 9세기중엽으로 잡고 9세기후반에 주로 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龍仁窯址의 初期라 할 수 있겠다.

㉡ 2層에서 부터 해무리굽碗類 위주로 燻造되고 있는데, 이 2층 출토품의 수량이 4, 3층보다 월등히 많으며, 해무리굽碗 자체 내에서도 기형상의 변화를 보이고 있어 제작기간이 상당히 길었음을 알 수 있다. 이 해무리굽碗의 시작은, 3층에서 소량이나마 나타나고 있어 3층 시기의 중반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시기는 앞서 해무리굽 발생시기에서 언급한 대로, 9세기말엽경으로 본다. 다음, 해무리굽碗 제작의 下限은 아직 분명하지 않으나, 최근 高敞 龍溪里 發掘結果, 大平 壬戌 2年(1022)銘 瓦片의 존재에 의해 이 窯址의 연대를 10세기전반~11세기전반경으로 잡고 있어 해무리굽 下限이 11세기전반까지 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엔 해무리굽 下限을 12세기 초까지 보는 견해도 있다.<sup>60)</sup>

龍仁窯址 白磁해무리굽碗의 경우, 전체 상황이나 유물의 특징등이 龍溪里 靑磁類와 가장 유사성을 보이고 있어 筆者 역시 龍溪里의 경우를 따라 2層의 下限을 11세기전반경으로 比定하고자 한다. 특히 本 窯址에서는 해무리굽片과 11세기 靑磁에서 보이는 陰刻唐草文이 施文된 배개片이 함께 붙어서 나온 例가 있어 下限시기 추정에 참고가 되고 있다.

龍仁窯址 2층의 年代를 대략 9세기말엽~11세기전반으로 잡는다.

㉢ 堆積 最上層인 1層은 粗質白磁類 時期이며 堆積物은 堆積部의 上部에 거의 전면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山쪽으로 경사져 올라가는 本 窯址의 後半部는 거의 1층 퇴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建物址에서도 대부분 1층의 磁器類들이 출토되었다.

59) 高麗時代 11世紀中葉인 文宗(1047~1083)年間은 中央集權의인 貴族政治体制가 확립되는 시기로, 遼·宋·高麗 3國간에도 세력균형이생겨 고려와 北宋간에 활발한 文化交流가 있게 되면서 文化史의으로도 큰 전기가 이루어진 시기였다. 陶磁器 전반에도 변화가 일어난 듯, 이무렵 文宗 30年(1076)에 所定된 祿俸制에 ‘諸窯直’과 ‘六窯直’이란 官名이 나타나 窯業의 中央統制化를 엿볼 수 있다. (震檀學會, 『韓國史, (中世編)』, 乙酉文化社, 1961, p. 329) 窯址에서도 11世紀末까지 康津가마가 더욱 확대되고, 扶安 保安面가마도 官窯形態로 발전한다(鄭良謨, 註 7)의 論文, p. 205).

60) 尹龍二, 註 41)의 論文, p. 77.

이 1층에 속하는 출토품들을 정리하면, 크게 2群으로 나누어 지는데, 胎土가 비교적 정선된 편이고 釉質도 앞시기를 따르고 있으며 器形도 11세기 靑磁類의 영향을 받고 있는 등의 특징을 지닌 종류와, 胎土가 더욱 조잡해 지고 半施釉한 접시류가 주류를 이루면서 完全 地方粗質白磁化한 부류가 있다. 한편, 胎土가 粗質이고 燒成狀態가 不良하면서 간략한 草化文계통의 문양이 있는 鐵繪磁器類가 이 시기부터 생산되고 있으며, 극히 소량이나마 우수한 翡色靑磁類가 나타나는데, 이중에 珪砂는 받침을 한 예도 있어 1층의 연대추정에 참고가 되고 있다.

위의 사실들을 토대로 1층의 제작시기에 대해 추정해 보면, 먼저 粗質化 시작을 보이는 단계의 것은 일반적인 靑磁와 비교하여 11세기후반의 특징을 보인다고 생각되며,<sup>61)</sup> 함께 출토되는 鐵繪磁器類의 경우도 11세기의 특징을 갖고 있어 일단 1층의 앞단계 그룹은 11세기후반작으로 추정한다. 다음, 1층 중에서도 完全地方白磁化한 것은 그 量은 보다 많으나 多量으로 포개 굽고 超大形 진흙가마 내에서 동질의 것이 출토됨으로 보아 대량생산에 의한 짧은 시기의 퇴적으로 생각되며, 翡色靑磁類, 12세기 鐵繪白磁類, 珪砂는 박힌 개떡, 棒形 도지미의 사용 등을 토대로 그 時期는 12세기전반작으로 比定하고자 한다.

㉔ 건물지의 上層 출토품 중에서 같은 粗質그룹 내에서도 燒成받침수법이 전혀 다른 一群의 粗質 碗, 鉢類들이 존재한다. 本 窯址에서는 精細質이든 粗質이든, 時期의 前後를 막론하고 燒成받침은 모두 耐火土를 얇게 받친 것인데, 이들은 砂粒 섞인 胎土를 큼직하게 받치거나 麗末鮮初에 유행한 공깃돌받침 처럼 보이는 작은 胎土덩어리의 받침을 사용하고 있어 매우 이질적인 받침수법을 보이고 있다. 또 建物址 內에서는 出自가 不明인 大形의 거북장식 뚜껑이나 높은 굽다리 孤狀의 口部를 가진 壺 등 祭器類로 보이는 것들이 여러점이 출토되는데 이들은 모두 器壁이 지나치게 두툽고 砂粒이 많이 섞인 粗質胎土로 高火度燒成이긴 하나 燒結狀態가 극히 不良하며 釉色은 靑色을 많이 띤 특징을 보이고 있다.

堆積丘陵과 인접한 建物址에서 출토한 이런 非내화토받침 碗, 鉢類와 出自不明의 大形器들이, 기이하게도 퇴적부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前者의 碗, 鉢類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類型의 白磁들은 本 窯址에서 제작되지 않았고, 다른 窯址에서 제작한 것들이 建物址에서 사용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런데, 本 窯址에서 2~300m 떨어진 南向한 山斜面에 소규모의 白磁窯址 흔적이 있는데, 이곳에서 모래받침이나 공깃돌받침을 한 白磁類가 발견되고 있다. 또 인근 上盤谷 白磁窯址에서도 본 요지의 뒷시기에 해당되는 磁片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 바로 인근의 이런 窯의 產品이 이곳의 최종 건물지에서 사용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 異質의인 部類의 白磁들의 연대는, 소성받침으로 보아 고려말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 거북장식의 경우 鮮初 白磁類에 일부 보이며,<sup>62)</sup> 중국에서는 이와 유사한 거북장식을 지닌 祭器類들이

61) 碗의 경우, 器壁이 孤狀을 이루면서 內面의 口緣아래에 一條의 陰刻線이 돌려져 있다.

62) 東垣先生蒐集品 중 15世紀形 硯滴上面에 土偶같은 장식이 달린 것중에, 등에 陰刻斜格字文이 있는 거북이가 있어 注目된다. (國立中央博物館, 『東垣先生蒐集文化財, 朝鮮時代陶磁』, 1982, p. 192.

元代墳墓에서 출토한 例가 있으며,<sup>63)</sup> 釉胎面에 있어서 1391년명 金剛山月出峰출토 白磁類와 매우 유사해, 이러한 사실들을 근거로 하여, 高麗末 14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상의 사항들을 종합하여 筆者는 龍仁窯址白磁를 크게 5時期, 즉, 古式白磁類時期(9세기중엽~9세기후반)→해무리굽碗白磁時期(9세기말엽~11세기후반)→粗質白磁Ⅰ期(11세기후반)→粗質白磁Ⅱ期(12세기후반), 그리고 高麗末白磁使用時期(14세기)로 編年하고자 한다.

## (2) 柳川里窯址出土 白磁類

全北 扶安郡 保安面 柳川里窯址에 대해서는 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이 多量으로 소장하고있던 이곳 출토 磁片들을 정리하여, '83년에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그 전모가 대략 밝혀졌다. 이 속에는 高麗白磁片이 다수 있었고 器形復原이 가능한 것도 많아 高麗白磁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sup>64)</sup>

### ① 柳川里白磁의 內容

㉠ 器形: 碗類, 대접류, 접시류, 盞類, 托, 承盤, 各種뚜껑류, 梅瓶類, 瓶類, 香爐, 장고 등이 있다(圖 9, 10參照)

이들 高麗白磁의 器形들은, 靑磁와 白磁가 함께 붙어 나온 대접-22로 분류된 편에서 알 수 있듯이 청자와 함께 번조되었으며, 때문에 재질은 다르더라도 기본적인 기형은 同窯址出土 靑磁와 동일하다는 것은 쉽게 짐작이 간다. 이것은 비단 器形뿐 아니라, 문양에서도 陰, 陽刻이나 象竭文이 동일하여 柳川郎의 白磁는 靑磁를 본만 것이 틀림없다.

㉡ 胎土: 매우 良質의 高嶺土를 精選하여 쓴 것이지만, 器壁을 매우 얇게 만들 수 있을 만큼 粘性도 좋은 陶土인 것 같다. 胎色은 대부분이 純白色이며 一部 灰白色을 보이거나 산화염에 의한 淡黃色을 보이는 경우도 드물게 보인다. 燒成度가 朝鮮白磁에 비해 낮고 磁化정도가 떨어져 肉眼에 의해서도 치밀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유리질화가 안되고 細粒子가 식별될 정도로 공극도가 높은 편이다.

㉢ 釉藥: 지나칠 정도로 얇게 施釉된 透明釉는 광택도가 높으면서 자갈한 裂狀氷裂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縱으로 길게 간 氷裂線 사이에 다시 자갈하게 그물눈 같이 갈라터진 裂狀氷裂은 다른 靑磁나 龍仁白磁, 朝鮮白磁 등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현상으로 특수한 物質을 함유한 釉藥을 사용한 것 같다. 그리고 釉層이 얇은 대신, 釉技術이 완벽치 못해 釉와 胎土와의 密着度, 즉 磁質

63) 甘肅省博物館樟縣文化館, 「甘肅樟縣元代汪世顯家族墓葬」, 『文物』1982年 2期, pp.1~21, 元代汪古族이란 蒙古族의 一支派人으로서 元代統治階層의 비교적 중요한 人物이었던 汪世顯의 家族墓라 한다. 總27基로 時期는 元~明代, 1243~1616년까지인데 이중 M8~M16號墓가 元代에 속한다. 元代墓出土品은 灰陶系의 器物이 많은데 그중 주목되는 것은 높은 寶珠形碁가 달린 蓋壺와, 圓筒形足이 달린 高足杯, 소위 玉壺春瓶이라하여 밑둥이 아담하게 부푼 瓶, I字形器身에 뚜껑이 덮힌 豆, 거북형꼭지달린 뚜껑이 있는 鄆, 圓筒形이나 方形의 높은 町身에 거북장식螺가 달린 뚜껑이 있는 大町類들이다. 이들 一括品들은 龍仁窯址 上層에서 나온 出自不明의 大形祭器類들과 매우 유사한 器形을 보이고 있다(圖 8 참조).

64)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扶安柳川里高麗陶磁』,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特別展圖錄(12), 1983. 이册에 많은 量의 靑磁, 白磁片의 사진이 수록되어 있다. 이중 白磁片은 筆者가 직접 조사하고 實測圖面을 作成한바 있다.

화가 잘 안되어 심한 釉剝落현상을 보이는 것도 특징이다. 釉色은 대부분 연한 綠色을 머금은 白色인데, 積釉部分에서 綠色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釉內에 微量의 鐵分을 함유한 것 같으며, 靑磁와 같이 환원염소성으로 생긴 결과로 생각된다.

㊸ 文樣 및 施文手法; 柳川里白磁에 배풀어진 陰刻, 陽刻, 半陽刻, 象嵌文樣的 종류를 보면, 크게 從屈文樣帶와 主文樣으로 구분된다. 從屈文樣帶에는, 陰刻雷文帶, 陰刻如意頭文帶, 陰刻蓮文帶, 陰刻伏紗文帶, 象嵌雷文帶, 象嵌如意頭文帶, 象嵌印花連珠文帶 등이 있고, 主文樣으로는 陰刻唐草文, 陰刻蓮花文, 陰刻草花文, 陰刻雲鶴文, 陰刻花文, 陰刻花析折文, 陰刻牡丹文, 陰刻雲文, 陽刻蓮花文, 陽刻蓮文, 象嵌花文, 象嵌牡丹文, 象嵌鳳凰文, 象嵌菊花文, 象嵌雲文 등이 있다.

施文手法의 내용을 보면, 먼저 陰刻手法에서 陰刻線이 약간 굵고 유려한 것이 많으나 가늘고 날카로운 陰刻線도 보이며 瓶類에는 半陽刻法(片切彫)이 많이 쓰이고 있다. 陽刻手法은 型押에 의한 것인데 문양이 매우 섬세하다. 象嵌文樣은 赭土와 靑磁胎土를 이용해 黑色과 灰色으로 나타나며 單位文樣의 施文面積이 좁아져 거의 線象嵌 위주로 된 것이 많다. 특히 장구片에는 印花手法으로 된 象嵌連珠文帶가 있어 注目된다.

㊹ 燒成方法; 소성시 사용된 받침은, 碗, 접시, 대접, 盞類 등 小形器는 대부분 珪砂눈받침이다. 珪砂는 굵은 것도 있지만 일부 매우 작은 것도 있다. 그러나 드물게 托에는 6개의 耐火土빛 음받침이 보이며 珪砂눈과 모래섞인 耐火土받침이 半半씩 사용된 例도 있다. 瓶類 등 大形器는 대부분 모래섞인 耐火土빛음받침을 사용하였다.

## ② 柳川里白磁의 編年

柳川里窯址의 年代는 대체로 11世紀末~14世紀로 推定되고 있다.<sup>65)</sup> 물론 12~13世紀의 中央官窯의 性格을 지닌 것들이 大宗을 이루고 있으나 14世紀 것으로 보이는 것들도 있다. 특히 높이 1m에 가까운 大梅瓶類의 경우, 陶磁器의 大形化는 元代에 유행한 作調로 알려져 있어, 그 영향으로 이런 大形器를 만든 것 같다.<sup>66)</sup> 또한 이들 梅瓶類에 나타난 如意頭文帶는 元代 靑華磁器에 유행한 크고 화려한 形式과 매우 유사하다. 故事人物文도 대체로 南宋後期부터 출현하는 것이고 碗의 形式에도 元代초기에 유행한 胴下部가 꺾인 ‘折腰碗’의 形式을 따른 것이 보이며, 간혹 보이는 모래받침 역시 元代陶磁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柳川里窯址 靑磁類 속에는 元代陶磁의 영향을 받은 14世紀作品들도 있다고 믿어진다.

柳川里 高麗白磁의 年代는 靑磁年代와 비슷할 것은 自明하다. 더우기 이곳 白磁는 白磁만 따로 구운 것이 아니고 靑磁와 함께 구운 것이다. 따라서 白磁年代도 청자에 맞춰 11世紀末~14世紀까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白磁만의 上限과 下限은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청자와 비교할 때, 白磁는 作調, 文樣, 燒成方法 등이 뚜렷한 定型化를 보이고 있어, 이곳의 窯가 완전히 자

65)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註64)의 冊, p. 3.

66) 朱伯謙; 王士倫, 「浙江省龍泉靑瓷窯址調查發掘的主要收穫」, 『文物』, 1963年 1期, pp. 27~41. 論考中 元代자기의 특징은 설명하면서 “특히 大窯나 竹口등지에 대량의 大形자기를 生産하여 높이가 1m 정도의 花瓶과 口徑 60cm의 盤이 있다”고 되어있다(p. 33).

리잡은 후부터 만들기 시작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 下限은 확인할 수는 없지만, 象嵌白磁類에서 釉胎가 매우 硬質이면서, 거의 純白을 보이고, 특유의 자잘한 裂狀氷裂이 없어지며, 문양에서도 印花連珠文帶나 화려한 雙鳳文 등이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13世紀以後의 것도 있다고 생각되나 14世紀作으로 확정할 만큼 뚜렷치는 못하다. 그러나 墩2-④로 분류된 片은 黑象嵌文이 있으며, 純白의 胎土가 磁質化가 잘 되어 있고 灰白色 釉調를 보이는데 특히 內面 施釉狀態가 매우 良好하며 氷裂이 전혀 없어 朝鮮初期 上品白磁片 같이 보인다. 其他 小片 중에도 이렇게 硬質이면서 灰白色을 띤 無氷裂의 白磁片이 더러 존재한다는 것은 注目되는 사실로, 朝鮮初期白磁의 成立이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된 것이라 믿어진다.

전체적으로 보아, 柳川里白磁는 대체로 12~13世紀에 속한다고 보여지며, 一部는 14世紀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이외에 窯址 出土品으로 康津 沙堂里의 경우가 있는데, 매우 少量이라 하며, 대체로 11世紀末~12世紀前半作으로 설명되고 있다. 象嵌白磁는 없고 軟質의 미세한 氷裂이 있으며, 모래섞인 耐火土를 빚어 받침으로 사용했고 대접, 盤, 주름문합, 陰刻文대접 등이 있다.<sup>67)</sup> 너무 少量에 설명이 간략해 지금으로서는 編年設定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 3. 高麗白磁의 遺存例

현재 國內外에 알려진 고려백자는 총 수량이 100점을 넘지 못하고 있으나 이 외에도 박물관이나 개인소장품 중에 상당수의 고려백자가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 필자가 조사한 고려백자는 75점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는 江原道 三陟郡 北坪邑 三和里古墳에서 宋代磁器들과 함께 발견된 16점의 고려백자일괄품들도 포함되어 있다.<sup>68)</sup>

이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내용은 表 1과 같다.

이 遺存例들을 정리해 보면, 대체로 10~11세기경으로 推定되는 것이 26점이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12세기에 속하며 이외 14세기작으로 추정되는 1점이 있다.

10~11세기작으로 추정되는 遺存例를 보면 碗이나 대접등 小形器들이 半정도이고 기타 小形盒, 향아리, 梅瓶, 淨瓶, 注子 등이 각기 少量보이며, 이중 文樣은 陰刻앵무문과 花文의 2例에 불과하다.

鐵繪白磁類들은 8例로 梅瓶 등 立體的 大形器들이 많으며 드물게 대접이 1例 있다.

10~11세기에들을 좀더 살펴보면, 1번 素文碗의 경우는 지금까지 11世紀作으로 추정되어 왔으나 龍仁窯址에서 해무리굽 보다 이른 시기에 출토하는 古式白磁類의 굽형태를 하고 있어 9世紀後半作으로 추정된다. 해무리굽碗들은 直斜壁에 굽모습이 뚜렷하여 10世紀作으로 생각된다. 遺存例 중 粗質白磁類들은 龍仁窯址의 경우로 보아, 일단 胎土가 粗質이거나 釉剝落 현상이 일어난 것은 11世紀 中·後半作으로 생각된다. 9번 鉢은 11世紀後半, 10번 앵무文鉢은 龍仁窯址에서도

67) 『世界陶磁全集』18, 高麗, 小學館, 1978, p.211의 圖 255, 256참조.

68) 鄭良謨, 「三陟郡 北坪邑 三和里出土 高麗時代白磁一括」, 『考古美術』129, 130合輯, 1976, pp.190~199.

나온 바 있어 11세기로 보아도 타당한 것 같다. 白磁淨瓶類는 龍仁窯址에서도 보이는데 대체로 11세기 후반 이후로 比定된다.

鐵繪白磁의 경우, 胎土에 砂粒이 섞인 11세기중엽 이후의 作調를 보이고 있어 일단 이들은 11世紀後半作으로 생각한다. 아직 柳川里등 다른 窯址에서 鐵繪白磁例가 보이지 않고 또 釉胎가 龍仁 것과 유사한 것이 대부분이므로, 高麗鐵繪 白磁類는 대체로 11世紀 중후반이후의 작품으로 생각된다.

12世紀로 추정되는 것들은 대부분 柳川里나 沙堂里出土 白磁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나 한쪽 地方白磁窯 作品으로 보이는 粗質白磁類가 있다. 이 시기에는 碗類나 접시, 盞類들은 보다 少量이고 瓶, 梅瓶, 注子 등 立體的 大形器들이 많아지고, 香盒인지 舍利盒인지 잘 모르겠으나 盒子라 불리는 小盒類가 많이 보인다. 그리고 象形白磁가 2點있다. 施文種類別로 보면, 素文은 8例에 불과하고 陰刻이 13例, 交胎文이 1例 있으며 象嵌文은 5例에 불과하다. 이 시기는 白磁에도 뚜렷한 有文化 傾向을 보이고 있다.

12世紀의 遺存例를 살펴보면, 대부분은 柳川里窯址에서 출토한 白磁類와 器形이나 文樣들이 同一하여 별다른 說明이 필요 없을 것 같다. 다만 33번 白磁有蓋碗은 柳川里窯址에서 출토되었다고 하나 이런 器形은 아직 梨花女大博物館의 白磁片들 속에는 보이지 않고 있어 柳川里白磁性格의 이해에 새로운 자료를 더해 준다고 생각된다. 30번 白磁托盤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崔淳雨는 12세기 전반의 高麗作으로 보았으나 소장자인 梨大博物館側에서는 中國의 景德鎮窯產으로 보고 있다. 32, 34번의 童子形香꽃이와 鴨形香爐의 경우도 일단은 柳川里白磁 釉胎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하나 高麗나 中國에서도 비슷한 作例가 보이지 않아 앞으로 좀더 검토되어야 할 종류로 생각된다. 柳川里窯址에서는 白磁盒子類는 보이지 않고 있다. 中國製 靑白磁盒과 同一한 器形과 作風을 보이는 이것들은 沙堂里에서 출토된 바 있어 이들은 沙堂里窯址產이라 推定된다. 象嵌文이 있는 것은 高麗白磁로 의심할 바 없는데 柳川里窯址에서 만든 것이 거의 확실한 것 같다. 象嵌 중에서도 가장 注目되는 것은 55번 白磁象嵌牡丹柳蘆文梅瓶으로 高麗陶磁 技術上 가장 어렵고도 最高의 수준을 보이는 作品이다. 白土와 靑磁土의 混入을 이토록 대담하게 사용된 예는 일찍 없었는데, 菱形운곽의 文樣部 構成은 13세기 후반에 유행한 것으로 생각되며, 釉調에서도 柳川里의 보편적인 釉色인 淡綠色면 것에 裂狀氷裂이 있는 것이 아닌, 靑白調에 網狀氷裂이 드문드문 있는 것이어서, 柳川里白磁 중에서도 시기가 다소 늦은 것으로 생각된다.

14세기작으로 추정되는 日本 根津美術官소장의 白磁象嵌菊文瓶은 柳川里白磁와 朝鮮初期 黑象嵌白磁와의 중간단계에 속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小形の 병이지만 밑둥이 크게 풍만하고 목이 짧게 벌어진 형태이나 아직 굵이 낮아 고려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胴部和 頸部로 이어지는 地点에 黑象嵌二條線이 돌아가 있어 高麗後期~朝鮮初期의 施文特徵을 보이고 있다. 胴體에는 매우 간결한 菊花折枝文이 黑象嵌만으로 되어 있는데 대체로 高麗後期, 14世紀頃의 作品으로 추정된다.

#### 4. 高麗白磁의 編年

지금까지 고려백자에 관한 자료들을 나름대로 분석, 정리하여 보았는데 이를 토대로 高麗白磁 全体에 대한 編年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本 編年設定에 있어서 中心軸을 이루는 것은 크게 두가지로, 해무리굽碗의 존재와, 전형적인 고려백자를 출토시키는 柳川里白磁가 그것이다. 이 두가지 사항은 高麗陶磁史 全体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編年的 意味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중심으로 編年을 시도하는 것이 靑磁編年과의 연결등의 문제를 고려하더라도 보다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두개의 中心軸을 바탕으로 하면 고려백자는 크게 4時期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 즉, 先해무리굽碗時期 — 해무리굽碗 全盛時期 — 柳川里白磁時期 — 高麗後期白磁時期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初期, 前期, 中期, 後期の 4時期로 編年하고자 한다.

이 4時期를 좀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初期

龍仁窯址 調査結果에 따라 해무리굽碗 時期 보다 이른 시기의 4, 3층 출토 유물이 중심이 되며, 年代는 9세기중엽에서 해무리굽碗 발생시기로 생각되는 9세기말엽 까지로 比定한다. 古式靑磁를 바탕으로 상당히 質이 우수한 白磁가 이미 제작되며, 굽바닥의 幅이 해무리굽의  $1/2 \sim 2/3$  정도되는 넓이의 굽을 가진 碗類가 標準的인 器形이다.

##### • 前期

해무리굽碗類 全盛時期로 시작은 9세기말엽 부터로 추정된다. 이 前期의 設定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龍仁窯址出土品을 분석한 결과, 前述한 바와 같이, 해무리굽碗은 대체로 11세기전반 까지 존재하고 11세기중엽을 고비로 粗質化가 되는데 粗質白磁類 중에 다시 11세기후반으로 比定되는 部類와 그 以後의 것으로 大別되고 있다. 따라서 龍仁窯址 自體만으로는 11세기중엽을 기준으로 마땅히 編年을 해야 하지만, 다음에 오는 보다 중요한 柳川里白磁를 中期로 잡고 그 시기를 前述한 대로 12~13세기전반으로 設定하고 있기 때문에, 11세기후반의 龍仁窯址 粗質白磁類를 前期에 포함시키는 것이 고려백자의 큰 흐름을 파악하는데 보다 이로울 것으로 여겨져 이것을 前期內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그래서 前期를 다시 細分하여, 해무리굽碗의 全盛時期인 9세기말엽~11세기전반을 前期Ⅰ期로 하고, 11세기후반의 龍仁窯址 粗質白磁類와 鐵繪白磁類들은 前期Ⅱ期로 編年하고자 한다.

##### • 中期

柳川里白磁를 中心으로 시기는 12세기~13세기전반으로 比定한다. 전형적인 고려백자로 널리 알려진 軟質의 자갈한 裂狀氷裂이 있고 세련된 作調를 보이는 白磁類가 이 시기의 主軸을 이룬다. 한편 이 中期에는 1198年銘 宋子清墓出土 白磁淨瓶의 존재와 같이 앞의 전형적인 고려백자와는 質이 크게 다른 粗質白磁類가 있다. 이들은 地方가마에서 제작된 것으로 믿어지며, 이같은 粗質白磁類가 龍仁窯址 末期에도 제작된 것 같다. 이로 보아 中期에는 고려백자가 크게 柳川里系와 地方粗質白磁系의 서로 다른 두 계통이 존재하였다고 생각된다.

· 後期

高麗 後期, 靑磁 衰退期에 해당되는 시기로, 13세기 후반~1391년 까지로 약 150년간의 기간이다. 그러나 後期는 가장 자료가 부족하여 명확한 例는 金剛山 月出峰出土(1391年) 白磁一括 뿐이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 지방가마의 사정일 뿐, 後期高麗白磁의 本流는 역시 柳川里系 白磁였다고 생각되며, 한편으로는 元代와 明初 白磁의 영향으로 새로 생긴 白磁類가 있었다고 추측된다. 이것은 朝鮮初期 15세기에 集中的으로 나타나는 黑象嵌白磁類를 살펴볼 때 뒷받침될 수 있겠는데, 이들은 크게 柳川里白磁 계통의 軟質, 中國白磁 영향 계통의 硬質, 地方白磁 계통의 淡青色 硬質白磁類 등 크게 3가지 部類로 나누어 진다. 때문에 고려 象嵌白磁의 영향이 계속된 것으로 확실시되는 이를 鮮初 黑象嵌白磁類의 狀況으로 보아 高麗後記 내지 末期의 白磁狀況도 이와 유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 初期(9세기중엽~9세기말엽); 古式白磁類.
- 前期(9세기말엽~11세기후반)
  - 前期Ⅰ期(9세기말엽~11세기전반); 해무리굽碗類
  - 前期Ⅱ期(11세기후반); 粗質Ⅰ期白磁類, 鐵繪白磁類
- 中期(12세기~13세기전반); 柳川里系白磁類, 地方粗質白磁類
- 後期(13세기 후반~1391년); 柳川里系白磁類, 地方粗質 白磁類, 元代明初白磁 영향 白磁類

#### IV. 結

本稿에서는 고려백자에 대한 發生問題 및 전반적인 編年設定만을 다루었다. 아직 고려청자와의 관계나 中國白磁의 영향문제 및 各時期別 內容등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지 못해 아쉽지만, 이 부분들은 후일의 작업으로 돌리고자 하며, 다만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結論을 대신하고자 한다.

· 靑磁의 發生을 9세기전반, 白磁의 發生時期를 9세기중엽으로 설정하였지만, 보다 확실한 靑磁의 발생시기가 규명되어야 할 것 같다. 현재까지 해무리굽碗을 중심으로 이해되어온 靑磁發生時期가 龍仁西里窯址發掘結果, ‘先해무리굽層’이 나타나게 됨으로 앞으로는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 層과 관련있는 初期靑磁窯址들에 대한 자세한 조사와, 統一新羅土器에 대한 研究가 필요하며, 이 時期와 관련된 中國側 資料도 보다 많이 입수되어야 하겠다.

해무리굽碗의 사용시기를 9세기말엽~11세기전반으로 보았는데, 해무리굽碗 發生時期와 사용기간, 終末時期, 그 사이의 變化內容 등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 龍仁窯址의 存續基間은 9세기중엽~12세기전반까지 근 300년간으로 보았으며, 建物址 上層에서 出土한 粗質白磁類는 인근 요지에서 제작한 14세기 白磁類로 보았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 고려백자 後期의 상황은 지금 자료가 거의 없어 空白에 가까운 상태이다. 이 後期야 말로 朝鮮白磁의 成立에 결정적 역할을 한 시기이므로 집중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柳川里 등의 전형적인 軟質高麗白磁類에 대한 검토와 後期 地方白磁의 實體把握이 있어야 할 것이며, 특히 현재 朝鮮初期로 알려진 白磁窯址들의 調査와 朝鮮初 黑象嵌白磁類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통해서 다소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表 1〉 高麗白磁遺存例

番號	所藏處	名 稱	規格(cm)	時 代	特 徵	參 考 文 獻
1	國立中央博	白磁素文碗	口徑15.6	11世紀로 推定	幅이 약간 좁은 해무리굽系統. 靑白調釉에 網狀氷裂. 釉·胎 조화 좋음.	小學館, 『世界陶磁全集 18, 高麗』 1978, p.142, Fig.38.
2	國立中央博	白磁대접	口徑15.6	10世紀	해무리굽. 斜壁. 淡靑色釉. 網狀氷裂. 耐火土빚음눈 넷.	小學館, 『世界陶磁全集18, 高麗』, 1978, 圖. 97, 98.
3	〃	〃	口徑15.5	10~11世 紀初	해무리굽. 靑白調釉色. 網狀氷裂. 耐火土받침눈 셋.	上同書. 圖. 120, 121.
4	〃 (東垣콜렉션)	〃	口徑15.3	9~10世紀	遺物番號. 1505.	國立中央博物館, 『東垣先生蒐集文 化財, 高麗時代陶磁器·土器·瓦博』 1983, 圖 405.
5	〃	〃	口徑 15-3	9-10 世紀	遺物番號 1571.	上同書, 圖 406
6	梨花女大博 物館	白磁碗	口徑11.2	10世紀	內面口緣下 一條陰線, 卵白色釉. 胎土거치나 釉藥치밀. 굽은 바닥을 깎아서 만듬.	梨花女子大學教博物館 特別展 圖錄 (10) 『高麗陶瓷』, 1981. 圖. 143.
7	〃	〃	口徑11.5	10世紀	內面口緣下 一條陰線, 釉·胎는 굵다. 굽은 얇으며 굽위에 한단 턱. 받침눈 3個.	上同書, 圖. 144.
8	〃	白磁접시	口徑10.5	10世紀	釉調는 푸른색이 짙고, 成形·施釉 거침. 바닥은 굽안을 깊이 깎고 耐火土받침.	上同書, 圖. 145.
9	〃	白磁鉢	口徑16.9	11世紀로 推定	硬質의 粗雜한 胎土. 內底圓刻. 內面口緣直下에 一條陰線, 靑白調의 軟質 白磁釉 일부釉剝落. 耐火土混入받침.	上同書, p.142, Fig.37.
10	國立中央博	白磁陰刻 앵무文鉢	口徑16.2	11世紀	“龍仁白磁해무리굽碗과 같이 그 釉胎가 11, 12世紀 고려백자에 가깝기보다는 오히려 淳化. 4年 銘壺의 釉質에 가까워, 고려백자	小學館, 『世界陶磁全集 18, 高麗』, p.134, Fig. 17.

					窯技의 未定着 단계에 있는것을 실감케한다.”	
11	梨花女大博物館	白磁盒	高4.5	11世紀	卵白色圓筒形盒. 釉剝落 있음. 胎土치밀. 굽은 얇고 굽안 釉藥뒹아냄.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特別展圖錄(10). 『高麗陶磁』, 1981. 圖. 140
12	“	白磁兩耳 항아리	高13.0	10世紀	靑綠色면 半磁質의 不透明 釉. 左右에 S字形 귀달림. 平底. ※三陟 三和里古墳出土 灰釉壺와 同形	上同書, 圖. 133.
13	日本民藝館	白磁淨瓶	高27.7	11世紀		柳宗悅 蒐集 『民藝大鑑』2卷, 筑摩書房, 1982. 圖. 63.
14	梨花女大博物館	白磁無文 梅瓶	高25.0	11世紀	입은 다소 非定型. 釉調는 靑白色. 平底. 器表는 약간 거친便. 流釉痕 있음.	梨花女大博物館 特別展圖錄(10) 『高麗陶瓷』, 1981. 圖. 139
15	“	白磁花文 주전자	高27.5	11世紀	直立形注口. 거친 陰刻花文. 作調가 대단히 거침. 釉調는 靑白色	上同書, 圖. 141.
16	延世大學校 博物館	白磁주전자	高27.0	13世紀 (10~11世 紀로 推定)	器形이 晚唐風의 古式을 보임.	延世大學校博物館, 『韓國磁器展』, 1982. 9. 圖. 41.
17	未詳	白磁爪形 水注	高22.3	11世紀後半 으로推定됨	특히 注口가 角이 지면서, 爪形胴體가 12世 紀의 세련되기 以前の 作調를 보임.	雄山閣, 『陶磁講座8, 高麗』, 1971. 圖. 95.
18	國立中央博 (三陟郡 三和里古墳 出土 白磁)	白磁淨瓶 2點	高28.9 31.0	11世紀 前半	12世紀 典型的인 것보다 古式. 釉는 暗褐 暗褐色調. 미세한 水裂있으며, 釉剝落이 많 음. 胎質은 軟質이면서 거칠다.	鄭良謨, 「三陟郡 北平邑 三和里出土 高麗時代遺物一括」, 『考古美術 129, 130 合輯』, 1976, pp. 190~199.
		白磁鐵繪 唐草文梅瓶	高 28.2	12世紀前半	釉·胎는 上同, 文樣은-胴體兩面에 立飾唐 草折枝文. 釉 거의 剝落.	
		白磁접시 11點	口徑9cm 內外	12世紀初	口緣外反되면서 外緣에서 둥글게 말아붙임. 內底圓刻있음. 굽은 平底. 받침은 가는 모래받침이거나 胎土비침.	

		白磁鐵繪唐草文 缸	口徑13.5 高13.1	12世紀前半	방구리形. 文樣은 唐草折枝를 옆으로 胴部 4 곳에 배치. 바닥은 平底. 白色 耐火土받침.	
		白磁 대 접		11世紀	耀州窯나 臨汝窯系統 대접과 類似形. 內面 口緣下에 一條陰線. 內底圓刻. 굽은 크고 힘차게 깎음.	
19	金炯泰	白磁鐵繪草文瓶	高18.9	11世紀 後半	石膏白色의 軟質系. 淡青色白磁釉. 미세한 氷裂. 釉剝落있음. 胎土에 砂粒 混入. 器面の 정리가 세련되지 않았으나 北宋初의 여운있음. 어깨와 몸체에 草文	中央日報 李刊美術, '靑磁', 韓國의 美④, 1981. 圖. 199
20	湖林博物館	白磁鐵繪草文梅瓶	高24.5	11世紀 中葉	初期梅瓶形. 胴體에 간략한 草文 두곳. 硬質. 靑味있는 灰白色釉. 미세한 氷裂. 모래받침. 龍仁窯址産으로 推定.	湖林美術館, 『湖林美術館所藏品選 集(1)』, 1984. 圖. 89.
21	湖林博物館	白磁鐵繪草文花形瓶	高23.1	11世紀	백합모양의 입을 갖춘 특이한 花形瓶 간략한 草文이 胴體 앞뒤面에 있음. 靑味있는 灰白色釉, 平底. 기벽두꺼움. 龍仁窯址産으로 推定	上同書, 圖. 90.
22	湖林博物館	白磁鐵繪草文 대 접	高7.8 口徑19.5	11世紀	높은굽. 外反口緣. 孤壁. 釉는 얇고 綠味띠고 광택좋은 白釉. 全面에 미세한 氷裂. 굽다리 露胎部는 赤褐色이면서 거침. 外面 3곳에 간략한 鐵繪草文. 胎土빛음는 3개.	湖林博物館所藏品.
23	梨花女大 博物館	白磁鐵繪草文梅瓶	高28.3	12世紀	입은 修理. 器形은 12世紀 典型. 釉調는 靑白色. 胴體에 간략한 鐵繪草文. 바닥에 모래받침.	梨花女大博物館 特別展圖錄(10) 『高麗陶瓷』, 1981. 圖. 42.
24	湖巖美術館	白磁鐵繪寶相唐草文	高26.6	12世紀	器形에서 11世紀 餘韻이 짙다. 어깨위에 고사리文帶. 벌어진 어깨部位에는 대담한	湖巖美術館, 『湖巖名品圖錄』, 1982, 圖. 38.

					鐵繪唐草寶相華文. 거친黃味있는 胎土. 흙모래 받침.	
25	國立中央博 (開城宮女洞 古墳出土)	白磁淨瓶	高28.0	1198年	12世紀 典型的인 淨瓶形 胎土堅硬이면서 미세한 黑點이 混在 釉面이 粗하고 帶靑灰白色을 띠	野守健, 『高麗陶磁の研究』, 圖書刊行會 1972年版, p.43, 図43.
26	日本 安宅콜렉션	白磁瓜形 水注 및 承盤	水注高18.6 承盤徑18.5	12世紀	典型的인 瓜形注子에 輪花形承盤이 딸린 드문例. 胎는 부드러우며, 釉는 가는 氷 裂있고 積釉部는 靑味를 띠. 唐代 邢州窯白磁와 비슷함.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東洋陶磁の展開』, 1982, 図.83.
27	日本 大和文華館	白磁梅瓶	高29.6	12~13 世紀	無文. 薄手. 부드러운 胎土. 따듯한 감이 있는 투명한 白釉. 全面에 가는 氷裂.	大和文華館所藏品圖版目錄4. 『陶磁- 朝鮮. 東南아시아·中近東·歐州』, 1975, 図.17
28	國立中央博	白磁梅瓶	總高31.3	12世紀初	뚜껑갓춤. 線의 變化가 없는 풍만한 胴體. 12世紀 初頃의 梅瓶形. 口部는 약간 두툼고 力強하며 목이 명확함. 胎土는 軟質. 釉藥은 극히 미세한 氷裂이 있고 약간 靑味 를 띠. 白色耐火土 받침 12個. 뚜껑 內面에 는 硃砂는 3개 받침.	小學館, 『世界陶磁全集 18. 高麗』, 1978. 図.102.
29	未詳	白磁瓜形 花瓶	高18.9	12世紀	仁宗長陵出土 靑磁瓜形瓶과 類似함.	『朝鮮工藝展覽會圖錄』(複刻版) 2卷, 東洋經濟日報社. 1984, 図. 51.
30	梨花女大 博物館	白磁托盤	徑12.8	12世紀	托의 中心蓋台가 突出한듯 높고, 托의 굽다 리도 높다. 全體素文, 定窯系白磁風을 보 임, 釉調는 特有의 정세한 氷裂이 있고, 극히 부드러운 감각을 보임.	小學館, 『世界陶磁全集, 18, 高麗』, 1978, p.151, Fig.60. 梨花女大博物館 特別展圖錄(10) 『高麗陶磁』 1981, 図.174.
31	國立中央博	白磁油壺	高 4.4	12世紀	비교적 납작한 몸체에 목이 약간 있으 며 盤口를 한 油壺. 全面에 가는 氷裂.	李秉昌, 『韓國美術蒐選』(高麗陶磁), 1978, 東京大學出版會. 図. 3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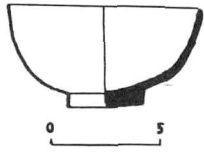
32	湖巖美術館	白磁童子形 香 罇 伊	高 16.1	12世紀	꽃어앉은 童子像. 氷裂있는 淡青色면 軟質 白磁釉. 바닥無施釉에 耐火土 굽어낸 흔적 있음.	湖巖美術館, 『湖巖名品圖錄』, 1982. 圖. 39.
33	未 詳	白磁有蓋碗	總高10.2 蓋徑12.8	12世紀	柳川里窯址出土品이라함. 뚜껑上面에 雙頭 의 獸形紐가 있음. 뚜껑은 黃味면 부드 러운 감이 있고 거의 氷裂이 없다. 胎土는 純白. 碗은 극히 얇고 影靑에 가까움.	香本不苦治, 『朝鮮の陶磁と古窯址』, 雄山閣, 1976. 圖版, 42.
34	湖巖美術館	白磁鴨形 香 爐	高18.7	12世紀 前 半	목이 길고 胴體가 細長한 鴨形香爐. 뚜껑 없음. 胴體部分表現, 釉藥처리등이 고려전 특징임. 釉는 淡靑色 부드러운 白磁釉. 網狀氷裂. 耐火土와 모래섞인 받침 使用.	小學館, 『世界陶磁全集 18, 高麗』. 1978, 圖.101.
35	日本個人藏	白磁陰刻 蓮花文碗	高 7.9 徑18.3	12世紀 前 半	弧壁. 낮은 굽. 薄手. 口部는 銳利함. 內面 4곳에 菊花文. 口緣下에 唐草文帶. 胎土는 灰白色. 黃味면 透明釉. 釉全面에 網狀氷裂이 나타나 있음.	李秉昌, 『韓國美術蒐選』(高麗陶磁), 1978, 東京大學出版會 圖. 325.
36	韓國個人藏	白磁陰刻 蓮唐草文盤	高3.0 口徑15.1	12世紀 前 半	器形이 예리하고 器壁이 얇음. 낮게 벌어진 同體에 平底. 文樣은 押出陽刻에 一部 陰刻文 併行. 釉는 매우 얇고 미세한 氷裂이 있으며, 약간 淡靑色딴.	上同書, 圖.326.
37	湖林博物館	白磁陰刻 蓮花文접시	高 3.5 口徑15.1	12世紀	위의 것과 거의 同形이나 口緣一部 破損 文樣細部表現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	湖林美術館, 『湖林美術館所藏品選 集(1)』. 1984, 圖. 91.
38	舊 日 本 小池厚之助藏	白磁陰刻 蓮花文托蓋	托徑13.2 托高 5.3 蓋高4.8 蓋徑7.5	12世紀	現在 화재로 소실되어 없어짐. 胎土는 純白에 가깝고, 釉는 靑味면 투명유. 全面에 가는 氷裂. 釉一部剝落. 托과 蓋모두 8弁花形. 全面에 화려한 陰刻文 베품.	河出書房, 『世界陶磁全集13』, 1955, 圖. 128.

39	國立中央博 (舊李王家 美術館藏)	白磁陰刻 牡丹文蓋	高4.5 口徑7.8	12世紀	內面 4곳에 牡丹文, 外面 口緣下에 雷 文帶, 釉는 內面 灰白色, 外面은 帶褐白 色, 內外면 共히 豎條水裂文 있음.	野守健, 「高麗陶磁の研究」, 圖書 刊行會, 1972年版, p.45, 図 43.
40	梨花女大 博物館	白磁陰刻 菊花文蓋	高4.5 口徑8.0	12世紀	內外面에 陰刻菊花折枝文. 外面 口緣下에 陰刻雷文帶. 釉調은 卵白色. 器壁은 極히 얇음. 磁砂는 받침 3개. 全面에 미세한 水裂. 釉剝落이 약간 있음. 12世紀中葉 고려백자의 특징을 보임.	梨花女大博物館特別展図録(10), 『高麗陶瓷』1981, 図 146. 小學館, 『世界陶磁全集18』 1978, p.151.
41	日本 根津美術館	白磁陰刻 草文輪花盃	高4.5	12世紀	8弁花形 外面 各弁에 陰刻草文.	日本 創樹社, 『小さな蕾』誌, 1984. 2月號, p.13.
42	日本 內藤定一郎 舊藏	白磁陰刻 牡丹唐草文瓶	高39.4	12世紀 13世紀	胎土는 純白의 견치한 磁質. 黃味던 투 명성 白釉. 全面에 가는 水裂. 釉剝落이 곳곳에 있음. 胴部 前後에 牡丹文, 左右 에 蓮花文이 있음.	河出書房, 『世界陶磁全集 13』, 1955, 図124.
43	日本 安宅 窟 硯 軒	白磁陰刻 蓮牡丹文瓶	高35.2	12世紀 中葉	胎土는 白色, 釉는 약간 靑味던 투명유. 全面에 가는 水裂. 釉의 작은 剝落이 보임, 목에 如意頭文帶. 胴의 4곳에 牡 丹折枝文을 陰刻. 彫法이 신중함. 胎土빛음받침.	李秉昌, 『韓國美術蒐選』(高麗陶 磁), 1978, 東京大學出版會, 図.323.
44	國立中央博	白磁陰刻 蓮花文長頸瓶	高35.1	12世紀 前 半	위와 거의 同形임. 釉의 균열이 많고, 剝落한 곳이 많으며, 釉色은 淡靑을 띠 고 있음. 胴體 4個所에 陰刻蓮唐草文. 耐火土와 가는 모래를 等量게하여 5개 소 받침.	小學館, 『世界陶磁全集18』, 1978, 図 189.
45	國立中央博	白磁陰刻 牡丹唐草文 梅 瓶	高30.5	12世紀 中葉	12世紀의 典型的인 梅瓶形. 어깨~下胴部 全面에 牡丹唐草文이 陽刻 되고, 花脈, 葉脈은 陰刻. 밑도리에 陽刻	中央日報 季刊美術, 『靑磁』, 韓國의 美④, 1981, 図 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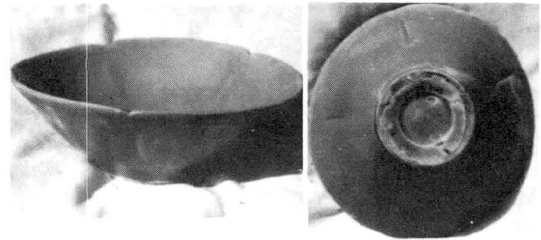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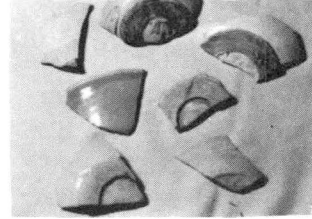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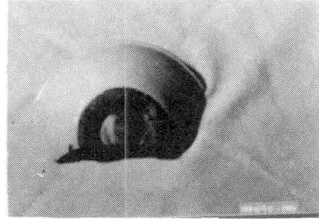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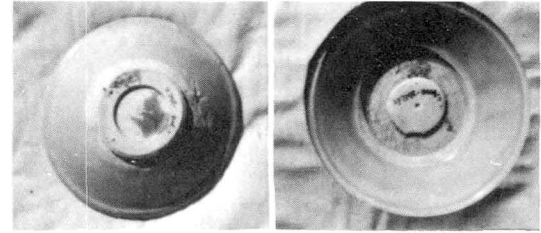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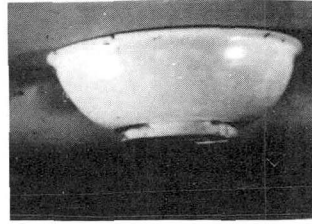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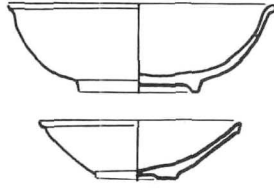
					蓮弁文帶와 陰刻雷文帶가 있음. 釉藥은 半失透性的 淸白磁釉. 미세한 氷裂. 용융상태 不良. 耐火土모래비집받침.	
46	國立中央博 (舊李王家 美術館藏)	白磁陽刻 蓮花文碗	高 5.4 口徑10.5	12世紀	釉는 靑白色. 外面은 素文으로 帶黃白色. 內面에는 蓮花文을 陽刻함.	野守健, 『高麗陶磁の研究』, 圖書刊行會, 1972, p.45.
47	日 本 安宅콜렉션	白磁陽刻 蓮弁文碗	高4.7 口徑11.7	12世紀	弧壁, 外反口緣, 外面은 素文. 內面 三重八蓮花文이 陽刻됨.	安宅콜렉션, 『東洋陶磁名品圖錄』 (高麗), 日本經濟新聞社, 1980, 圖291.
48	梨花女大 博物館	白磁陽刻 鐵彩蓮弁 文托	高5.5 徑15.0	12世紀	蓋받침部가 四重伏蓮의 異形托. 弁端. 하나하나에 鐵砂點을 찍음. 굽다리는 높고 8弁形. 釉胎는 치밀하고 釉調는 卵白色.	梨花女大博物館特別展圖錄(10) 『高麗陶磁』, 1981, 圖 147.
49	國立中央博 (東垣콜렉션)	白磁陽刻 雙鶴文盒	徑13.1	12世紀 中葉	胎土는 밀도 있고 釉藥은 안정됨. 뚜껑에 陽刻으로 구름속의 雙鶴을 나 타냄.	中央日報 季刊美術, 『靑磁』, 1981, 圖195.
50	日 本 個人藏	白磁陰刻 草花文盒	徑9.0	12世紀	위의 것과 同形의 盒.	李秉昌, 『韓國美術蒐選』(高麗陶磁), 東京大學出版會, 1978, 圖357.
51	國立中央博	白磁陽刻 누비주름文盒	徑8.9	12世紀	뚜껑上面에 陰刻草花文. 釉는 淡靑을 머금은 부드러운 白磁釉. 미세한 氷裂. 耐火土빛음눈.	同和出版公社, 『韓國美術全集9, 高麗陶磁』, 1977, 圖127.
52	國立中央博	白磁絞胎 刺子文合子	徑8.4	12世紀	뚜껑上面 圓心에 陰刻菊弁文이 있음. 역시 上面에 白磁胎土에 楮土質土로 된 나선形 絞胎文이 있고, 合內部에는 鐵彩 가 칠해짐.	小學館, 『世界陶磁全集18』, 1978, Fig.40.

53	國立中央博	白磁刺子文 合子	徑10.2	12世紀	釉胎質은 部分的으로 黃色調를 띤 따듯한 감. 바닥에 硃砂눈받침 3個. 뚜껑과의 接合部는 露胎로, 胎土의 質은 唐·五代風의 牙白色으로 發色됨.	上同書, Fig.39.
54	湖林博物館	白磁陰刻 蓮葉文盒	高 6.4 徑10.4	12世紀	胎土는 부드러운 半磁質. 綠味던 釉調. 施釉 얇으며 全面에 가는 水裂. 뚜껑上面에 蓮葉으로 보이는 문양이 얇게 陰刻됨. 뚜껑下端을 無釉로 둘러싸고 작은 胎土빛음받침이 묻어 있음. 밑쪽의 턱받침部는 無釉. 바닥에 胎土빛음받침이 4곳 있음.	湖林博物館所藏品
55	國立中央博	白磁象嵌牡丹 柳蘆文梅瓶	高29.2	12世紀 中葉	胴이 六稜瓜形. 各面에 菱形운곽을 黑象嵌, 그 區內에 靑磁胎土를 嵌入. 그 위에 鐵彩와 白土로 된 牡丹文, 葦蘆文, 蒲柳水離文, 蓮花文등을 背地象嵌해 넣음. 釉色은 靑白調. 全面에 網狀水裂, 燒成時 찌그러짐. 耐火土빛음받침.	李秉昌, 『韓國美術蒐選』(高麗陶磁), 東京大學出版會, 1978, 図324.
56	國立中央博	白磁象嵌蒲柳 水離文淨瓶	高33.1	12世紀 中葉	12世紀中葉의 典型的인 고려백자로 세련됨. 釉胎와 器形이 정제됨.	小學館, 「世界陶磁全集18」 1978, p.142, Fig.36.
57	國立中央博	白磁象嵌 菊花文盒	高4.3 徑5.8	12世紀 中葉	오뎅하고 아담한 香嵌. 뚜껑上面 中間에 국화꽃 한가지 象嵌盒. 釉藥은 약간의 淡褐色調. 全面에 裂狀水裂. 뚜껑·밑쪽 함께 燻造. 白色耐火土와 가는 흰모래빛음받침.	中央日報 季刊美術, 『靑磁』, 1981, 図186.
58	國立中央博	白磁象嵌 寶相唐草文盒	高2.8 徑7.3	12世紀 中葉	開城附近 出土 뚜껑上面에 細線黑象嵌의 菊唐草文. 釉는 淡靑을 머금고, 網狀水裂이 있으며 약간 두텁게 施釉. 밑쪽 口部에 가는	上同書, 図197.

					耐火砂를 6개소에 반쳤고 밑짝 안굽에는 硃砂는 3개 있음.	
59	梨花女大 博物館	白磁象嵌 蓮花唐草文盒	高3.8 徑7.5	12世紀	뚜껑上面의 同心圓속에 逆象嵌花卉文. 『高麗陶瓷』, 1981, 色圖 1. 그 밖으로 蓮花와 唐草를 차례로 黑象嵌함. 뚜껑側面과 밑짝 上端에 黑象嵌雷文帶. 靑白色 釉調. 굽은 얇고 둥근 테두리 있으며, 굽안은 釉를 깎아냄	梨花女大博物館特別展圖錄(10).
60	日本 根津美術館	白磁象嵌 菊文瓶	高10.4	14世紀	밑둥이 크게 벌어지고 목이 짧게 벌어진 瓶. 胴部和 頸部사이에 二條黑象嵌線이 있고 胴體에 간략한 菊花折枝文이 있음.	根津美術館, 『朝鮮の名陶』, 1966, 圖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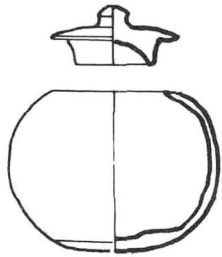


① 武寧王陵出土 燈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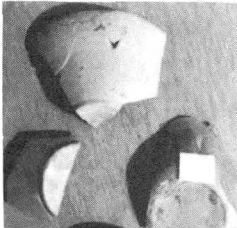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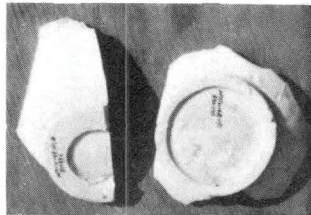


④ 雁鴨池出土 中國白磁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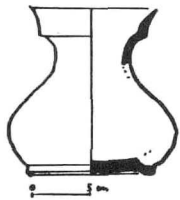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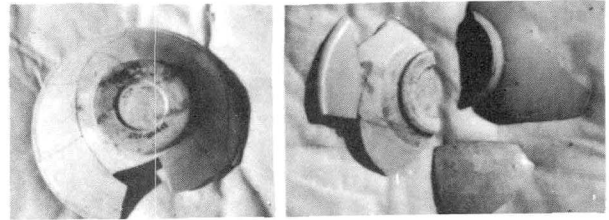
⑥ 彌勒寺址出土 中國白磁・青磁  
(858年層 一括出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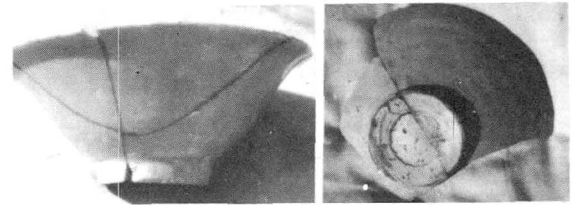
② 皇龍寺址 木塔址  
心礎石下出土 白磁小壺



⑤ 皇龍寺址出土 中國白磁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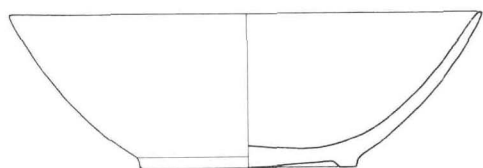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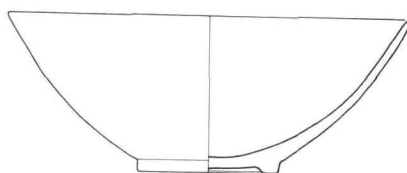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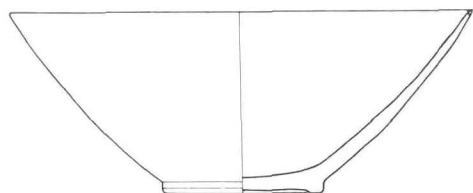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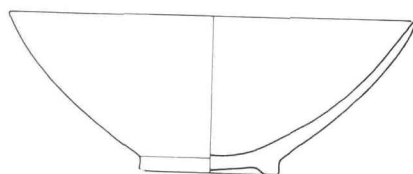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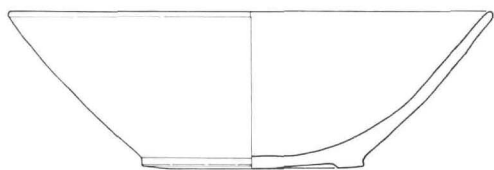


③ 義城出土 白磁唾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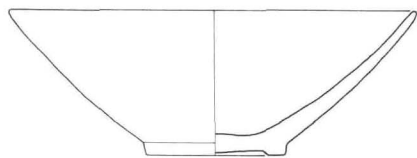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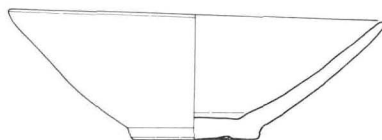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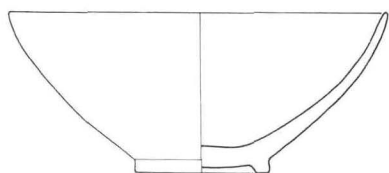
⑦ 彌勒寺址出土 白磁類

〈圖 1〉 우리나라 遺蹟出土 隋・唐白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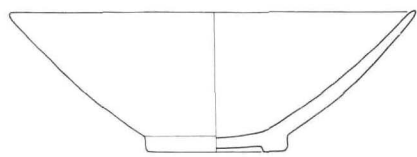


〈4-II層出土 青磁, 白磁碗(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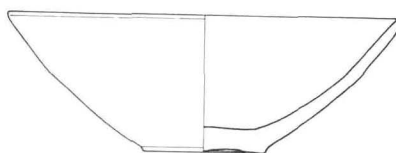
〈4-I層出土 青磁 鉢類〉



〈2層出土 白磁해무리굽 碗〉



〈3層出土 白磁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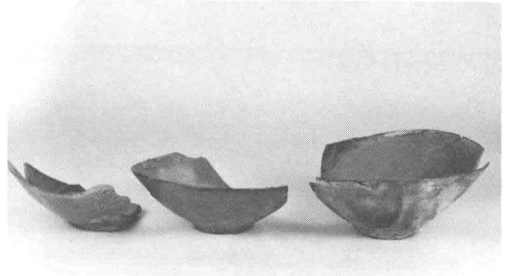


〈1層出土 粗質白磁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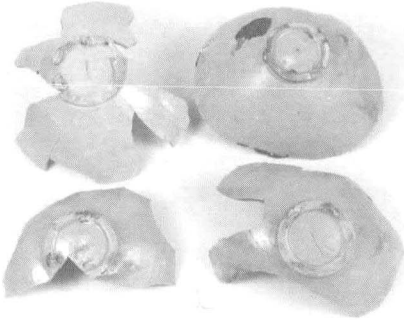
〈圖 2. 龍仁窯址 層位別出土 磁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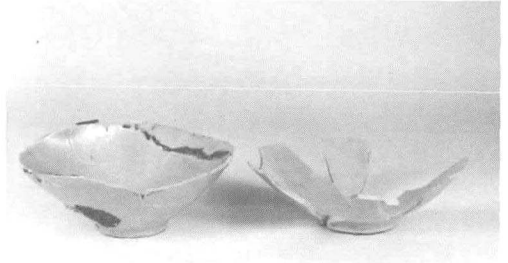
〈4層出土 靑磁碗, 鉢〉



〈4層出土 靑磁碗, 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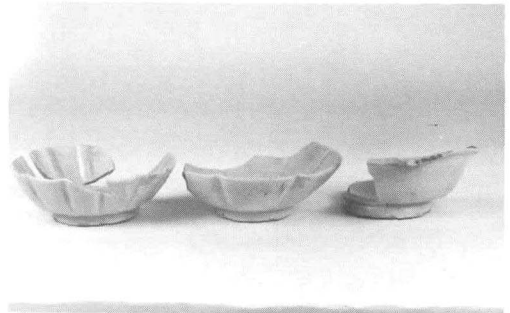
〈4-Ⅱ層出土 白磁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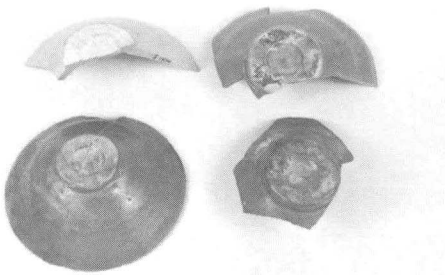
〈4-Ⅱ層出土 白磁碗〉



〈3層出土 白磁碗〉



〈3層出土 白磁花形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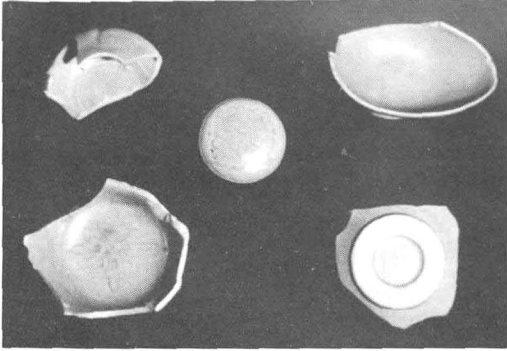


〈2層出土 白磁 해무리굽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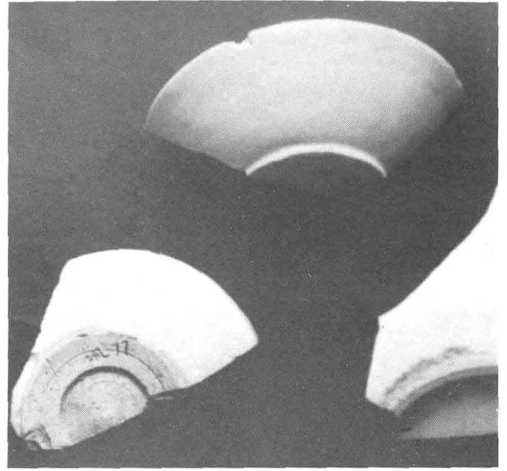


〈1層出土 粗質白磁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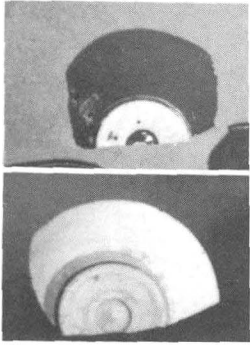
〈圖 3〉 龍仁窠址 層位別出土 磁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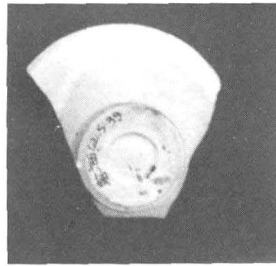
越州窯(青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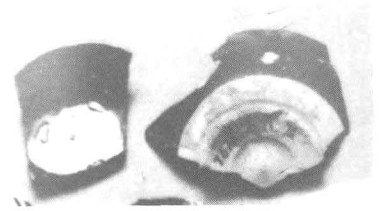
河南省 鞏縣窯(白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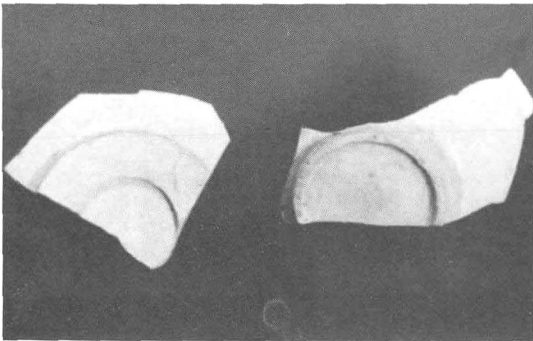
山西省 渾源窯  
(黑釉, 白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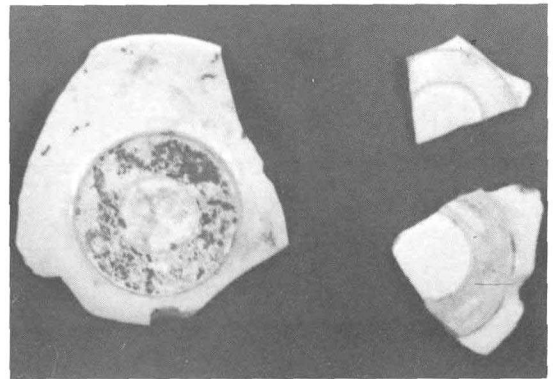
河南省 密縣窯  
(白磁)



山東省 淄博窯  
(黑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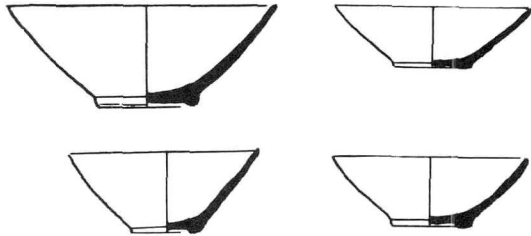


河北省 定窯(白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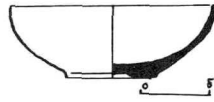


河北省 邢窯(白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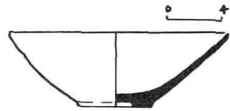
〈圖 4〉 中國唐代 窯址出土 各種 해무리굽片  
(出光美術館, 『近年發見の窯址出土中國陶磁展』, 1982에서 採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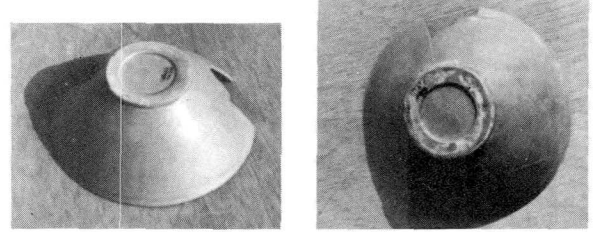
① 扶餘扶蘇山出土 越州窯 青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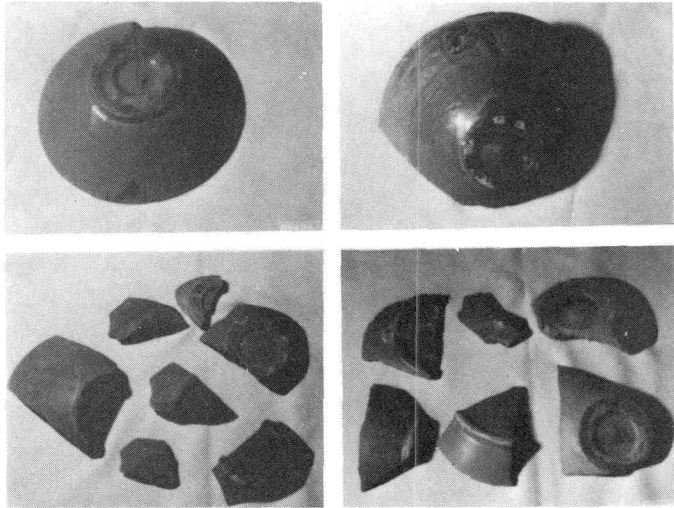
② 慶州拜里出土 越州窯 青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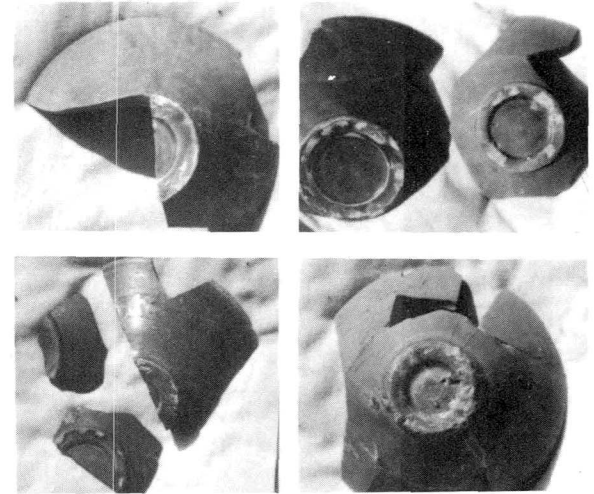
③ 皇龍寺址出土 越州窯 青磁



⑤ 皇龍寺址出土 中國青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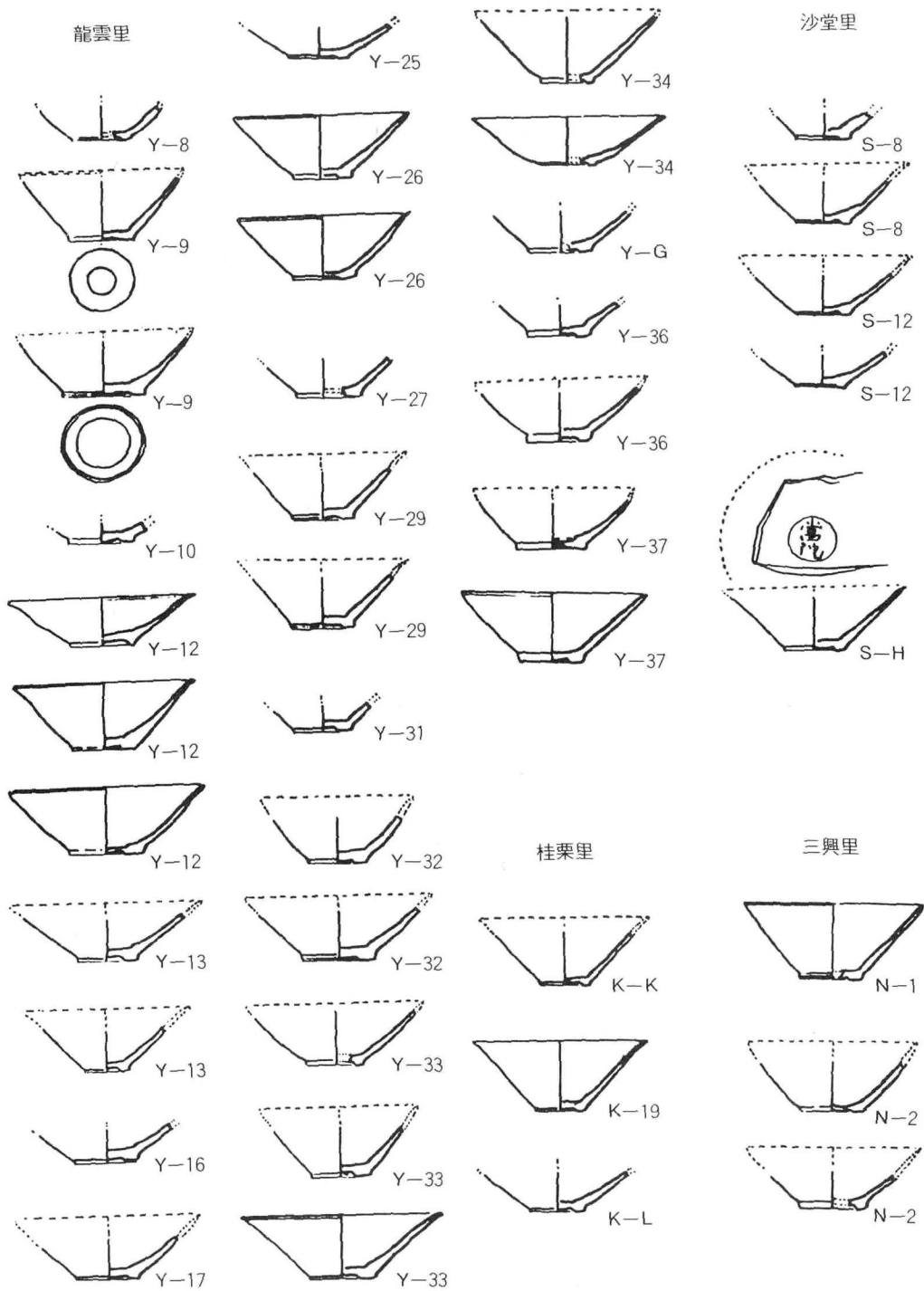


④ 雁鴨池出土 中國青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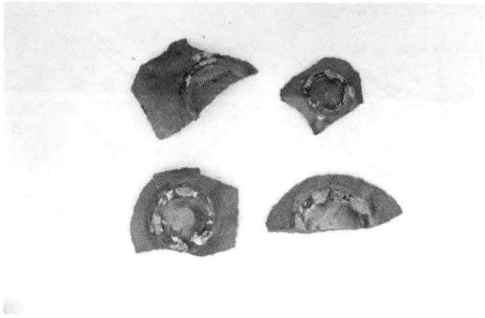


⑥ 彌勒寺址出土 中國·韓國青磁

〈圖 5〉 統一新羅 遺蹟出土 越州窯青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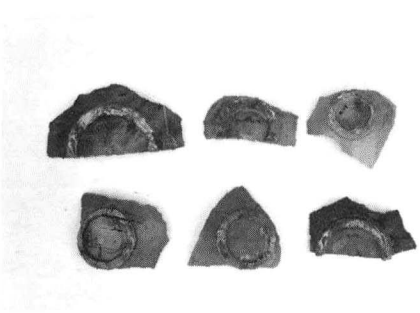
〈圖 6〉 康津龍雲里一帶窯址出土 해무리굽碗類 (吉岡完祐, 註 27)의 冊에서 발췌인용)



〈高陽 元興里〉



〈楊州 釜谷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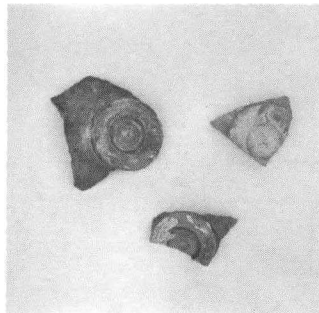
〈瑞山 梧沙里〉



〈鎮安 道通里〉



〈高敞 龍溪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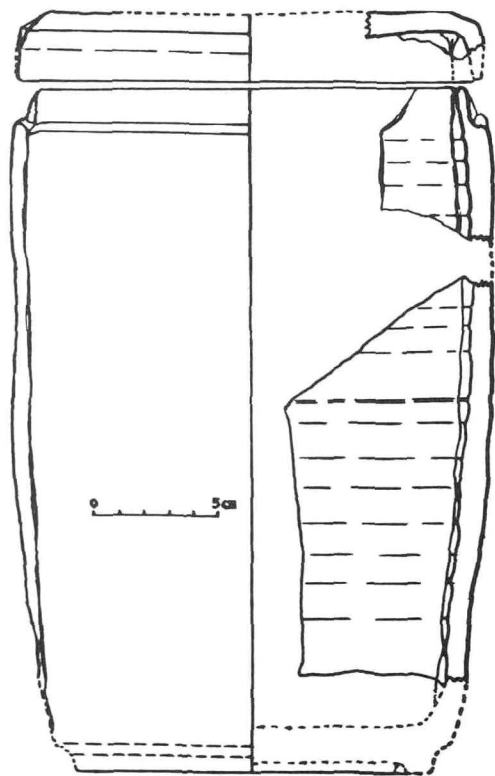


〈高敞 盤岩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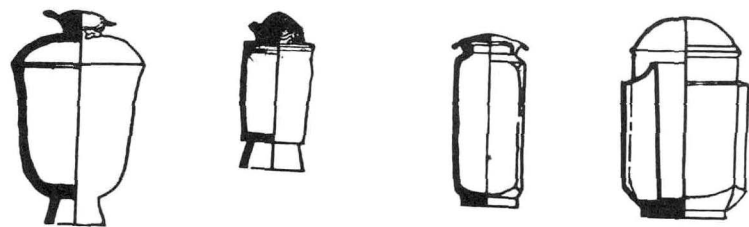


〈高興 雲岱里〉

〈圖 7〉 初期青磁窯址 出土 磁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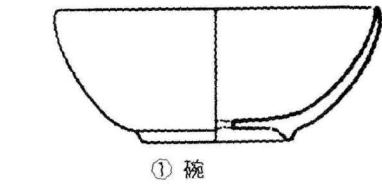


① 龍仁窠址出土 方形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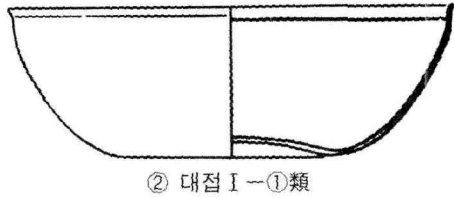


② 中國 甘肅省漳縣 元代汪世顯家族墓 出土品(註117)의 논문)

〈圖 8〉 龍仁窠址出土 方形盒과 元代墓出土品



① 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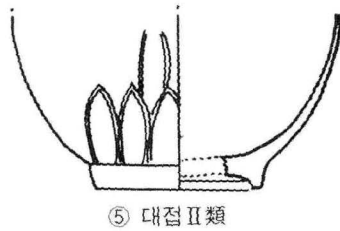


② 대접 I-①類



③ 대접 I-②類

④ 대접 I-③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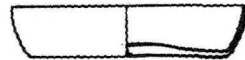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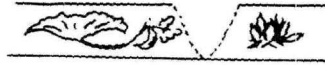
⑤ 대접 II類



⑥ 접시 I-①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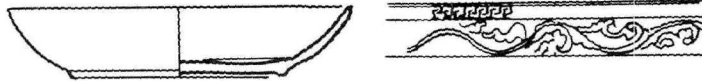
⑦ 접시 I-②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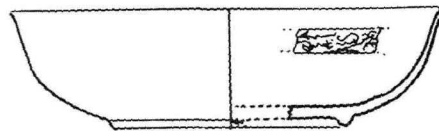
⑧ 접시 II-①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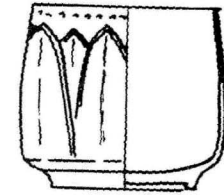
⑨ 접시 II-②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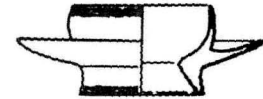
⑩ 접시 III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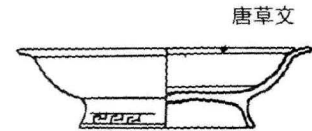
⑪ 접시 IV類



⑫ 陽刻蓮弁文蓋



⑬ 托, 蓋



內側面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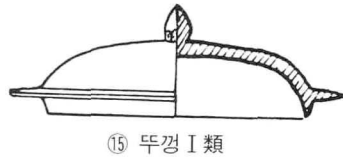
⑭ 承盤

唐草文

바닥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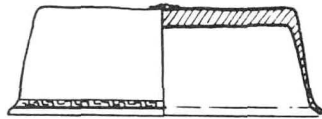
〈圖 9〉 柳川里窯址出土白磁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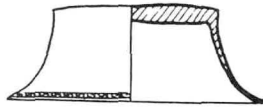
⑮ 뚜껑 I 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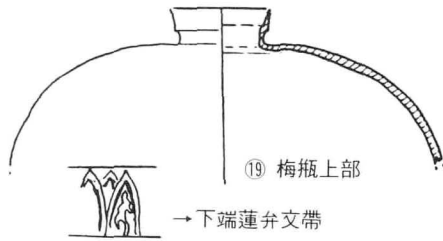
⑯ 뚜껑 I 類 당초문 각종



⑰ 뚜껑 II 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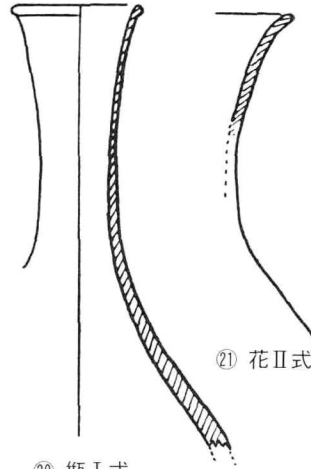


⑱ 梅瓶 뚜껑, 文樣



⑲ 梅瓶 上部

→ 下端蓮弁文帶



⑳ 瓶 I 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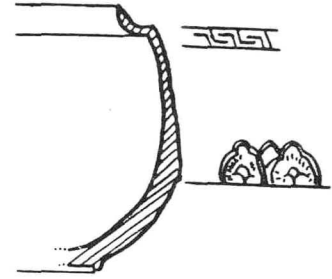


(頸部如意頭文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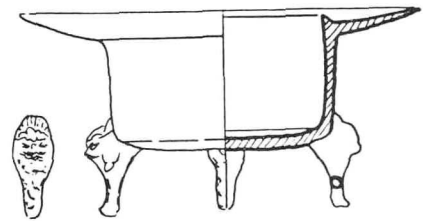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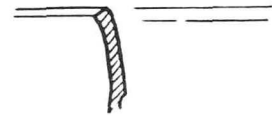
㉑ 花 II 式



㉒ 瓶 胴體部 陰刻蓮花文



㉓ 盒 類



㉔ 香爐

〈圖 10〉 柳川里窯址出土 白磁類